

www.hufs.ac.kr



# 글로벌 융복합 HUFS가 답이다

한국외대(HUFS)는 어문학, 지역학을 기반으로  
외교·통상·경제·이공계 분야 학문을 융합한  
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글로벌 융복합 대학  
한국외국어대학교

수시모집 원서접수  
2017. 9. 11(월) 10:00 ~ 9. 13(수) 18:00



GLOBAL HUFS

2017 SUMMER

Vol. 96

HUFS

# GLOBAL HUF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MAGAZINE  
2017 SUMMER

Vol. 96



# QS World 대학평가 국내 종합대학 8위



세계순위 34계단 상승, 학계평가 111계단 상승

6월 8일(목) 영국의 대학평가 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가 발표한 '2017 세계 대학 평가'에서 HUFS가 세계순위 397위, 국내 순위 11위(종합대학 8위)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by Subject 2017

순위	분야명	2015	2016	2017	어문계열	언어학
1	현대언어학(Modern Languages)	46	46	34	1 하버드대(미)	1 MIT(미)
2	언어학(Linguistics)	101-150	101-150	51-100	2 케임브리지대(영)	2 하버드대(미)
3	영문학(English Language&Literature)	151-200	151-200	101-150	3 옥스퍼드대(영)	3 에머스트대(미)
4	국제정치학(Politics&International Studies)	-	-	151-200	11 서울대	34 서울대
					24 고려대	<b>51-100 한국외대, 고려대</b>
					29 성균관대	
					<b>34 한국외대</b>	

▲ [출처: 조선일보]

학계평가(40%), 논문당 피인용 수(20%), 교수 1인당 학생 수(20%), 졸업생 평판(10%), 외국인 교수 비율(5%), 외국인 학생 비율(5%)로 이루어진 평가 항목에서, HUFS는 특히 학계평가에서 111계단 올라가 순위 상승을 견인했다.

한편, HUFS는 지난 3월 QS 세계 대학 학문 분야별 평가에서 인문학의 강자답게 예술&인문 분야(Arts&Humanities)에서 3개 분야에 랭크되었으며, 순위도 지난해 231위에서 81계단 상승한 150위로 대폭 상승한 바 있다.



vol.96

HUFS, 아너스프로그램 Honors Program을 통한  
특수외국어 전문 인재 양성으로  
차세대 국가 성장 동력을 마련하다

### Special Theme

HUFS Interview	04	제36회 스승의 날 기념 교육부장관상 수상 장용규_아프리카학부 교수 신임 교수협의회장 김은경_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네팔 오지에 학교·병원 건립 엄홍길(중국어 02)_엄홍길휴먼재단 상임이사, 한국외대 석좌교수 제주항공 리프래시 마케팅·광고 공모전 대상 수상 김준형(영어통번역학과 13) 류승엽(일본어학전공 13) 임지선(국제통상학과 14)
Special Theme	12	HUFS, 아너스프로그램 Honors Program을 통한 특수외국어 전문 인재 양성으로 차세대 국가 성장 동력을 마련하다
Special Interview 1	14	권혁재 교수(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Special Report	16	전략지역전문가 아너스프로그램
Special Interview 2	18	박경은 교수(태국어과)
HUFS Explore	20	서울캠퍼스 발전협력팀
Global Memoirs	22	2016학년도 동계 HUFS 글로벌봉사단을 다녀와서
HUFS Table Talk	24	캠퍼스 문화축제
Global Issue	28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언어, 빅데이터 그리고 알고리즘 최대우_통계학과 교수
HUFS Books	30	지식출판원 새로 나온 책

### HUFS News

HUFS Topic	34	9년 연속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아니발 안토니우 카바코 실바, 포르투갈 대통령 HUFS 방문 '제36회 외대 모의월드컵' 결승전 및 '2017학년도 농구대잔치' 개최 진로취업지원센터 '2017 재직 동문 멘토링 DAY' 행사 개최
HUFS Today	38	
HUFS 학술 소식	44	
HUFS 교수 소식	46	
사이버한국외대 소식	47	
HUFS 사업지원처 소식	48	

### Alumni & Donation News

동문 소식	51
주요동문 인사	52
발전기금 소식	53
발전기금 약정자 명단	54



제36회 스승의 날 기념 교육부장관상 수상  
장용규\_아프리카학부 교수

*Chang Yang Kyu*

# HUFS INTERVIEW



*Kim Eun Kyung*

신임 교수협의회장  
김은경\_법학전문대학원 교수

*Um Hong Gil*

네팔 오지에 학교·병원 건립  
엄홍길(중국어 02)\_엄홍길휴먼재단 상임이사, 한국외대 석좌교수



*Your flight is*



제주항공 리프्रेस 마케팅·광고 공모전 대상 수상  
김준형(영어통번역학과 13)  
류승엽(일본어학전공 13) 임지선(국제통상학과 14)

제36회 스승의 날 기념 교육부장관상 수상  
장용규\_아프리카학부 교수

# Chang Yang Kyu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이 상을 받게 된 과정을 소개해주시시오. 오늘 촬영에 함께 참석한 학생이 우리 학부의 김이수 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지난해 대한민국인재상을 받았어요. 평소에도 아프리카 관련 NGO에서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케냐에도 1년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초, 교육부 쪽에서 김이수 학생에게 스승을 추천해달라는 연락이 왔다고 해요. 저는 전혀 몰랐던 일이라 나중에 상을 받게 됐다는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스승의 날에, 제자가 추천하는 상을 받게 된 소감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연구자로서 연구 성과나 논문 등으로 받는 상도 의미가 있지만, 후학을 양성하는 입장에서 이런 상을 받는 건 또 다른 보람과 감동이 있습니다. 사실 그 어떤 상보다 더 기뻐합니다. 저희 아프리카학부는 동부, 남부, 서부 등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는 남부 전공이고, 김이수 학생은 동부 지역을 공부하고 있어 수업과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7+1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국으로 가게 됐을 때 케냐 봉사활동을 떠나기 전 등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마다 상담하러 자주 찾아왔어요. 제가 아프리카학부 1기 졸업생이라 제자들에 대한 애정이 좀 각별한 편입니다. 실제로 모든 제자가 다 후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학생들이 어떤 고민을 얘기할 때 제 일처럼 신경이 쓰이고,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알아주었다는 것이 무엇보다 고맙죠.

아프리카학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위에 말씀드린 대로 아프리카를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누어 스와힐리어, 줄루어, 하우사어 등 그 지역의 공용어를 기본으로 배웁니다. 그 외 경제, 정치, 역사 등 지역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고요. 저는 인류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 연구 활성화를 위해 아프리카연구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인문한국 해외지역사업(HK)'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축적된 다양한 학문적, 실용적 성과물들을 사회에 환원하고 소통하는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서울아프리카페스티벌입니다.

서울아프리카페스티벌은 어떤 행사입니까? 국내에 있는 아프리카와 관련된 단체들이 함께 축제의 장을 만들어 아프리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보자는 취지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희와 '아프리카 인사이트'라는 사회적기업, NGO인 '월드투게더', 이렇게 세 곳이었는데 작년에는 20개 단체가 참가해 깜짝 놀랐습니다. 올해는 40개로 늘었어요. 국내 단체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온 국내 거주 유학생들의 커뮤니티들도 있고요. 아프리카와 교류가 많아지고 있고, 그만큼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교수님 입학 당시(1983년)만 해도 아프리카 관련 학문은 미개척 분야나 다름 없었을텐데요. 아프리카학부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등학교 때 HUFS 스와

힐리어과 김윤진 교수님께서 신문에 쓰신 칼럼을 봤어요. 그때는 아프리카학부가 아니라 스와힐리어과였죠. 요약하면 '앞으로 아프리카가 유망한 지역이 될 것이고, 스와힐리어를 공부해 두면 좋다'는 내용이었어요. 아프리카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졸업 후 대학원에서 한 학기를 더 공부하다 아내와 함께 인도로 갔습니다. 아내도 인도어과 출신이예요. 거기서 다시 석사 과정에 입학해 사회학과 인류학을 접목시킨 새로운 학문을 공부했어요. 이후 남아공으로 가 5년간 지내며 박사학위를 받고 모교로 오게 됐지요.

제자들 사이에서 '격의없이 편안한, 선배같은 교수님'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제자들에게 평소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학생들에게 '학교와 집만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희가 글로벌 캠퍼스에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단조로운 생활에 묶일 수가 있어요. 아프리카와 관련된 활동은 거의 서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지런히 찾아 다녀야 합니다. 열정이 있는 학생들은 아프리카 관련 단체들과 연결해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교수이자 선배로서 학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정말 크기 때문에,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도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 제자의 추천으로 받은 상이라 더 뿌듯합니다

지난 5월 장용규 교수는 스승의 날 기념 교육부장관상을 받았다. 스승 존경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부가 주관하는 상으로, 교육 현장에 헌신해 교육발전에 기여한 우수 교원을 매년 발굴해 표창한다. 평소 학생들을 살뜰하게 챙겨온 것으로 유명한 장교수는 이번 상이 "연구 성과로 받은 그 어떤 상보다 고맙고, 감동적"이라고 말했다.

추천학생  
김이수(동아프리카어전공 12)





## 견제와 협력 통해 학교 발전 방향 모색할 것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HUFS 교수협의회가 올 초 신임 수장을 맞았다. 역대 두 번째 여성 회장이자 20대 회장이 된 법학전문대학원 김은경 교수가 그 주인공. 이미 19대 교수협의회 부회장직을 수행하며 부드러운 강인한 리더십과 추진력을 인정받은 그는 77%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회장에 선출됐다.

# Kim Eun Kyung

신임 교수협의회장

김은경\_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교수협의회장 취임을 축하 드립니다. 중책을 맡게 된 소감이 궁금합니다.** 전혀 준비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한동안 얼떨떨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잠도 못 잘 정도로 부담이 컸는데 지금은 맡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제 진짜 학교 구성원이 된 것 같고, 일상생활에서도 학교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학교에 몸담고 있는 동안 평생 한 번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수협의회장으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회장이 되고나서 제일 먼저 양 캠퍼스를 돌며 직원선생님들에게 인사를 했어요. 그분들의 협조가 없으면 학교 사정을 알 수도 없고, 도울 수도 없기 때문이죠. 민원이 있는 교수님들은 개별적으로 만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나름 중재 역할을 하려고 하고, 필요하면 학교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하기도 해요. 의견을 전달할 때는 반드시 공문서 형식으로 보냅니다. 문서화해 근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받는 분도 무게감을 느끼게 되고요. 아마 전공의 특성에서 나오는 일종의 직업병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회원들이 신임 회장에게 바라는 내용은 주로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많은 분들이 소통 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행될 때 납득이 가도록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통보나 하달 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또 행정업무 과중에 대한 의견이 많았어요. 교학과 해체 이후, 행정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교수님들이 많아요. 어떤 일처리를 하려면 일일이 관련 부처들을 찾아가야 하고, 업무 연관도 안 되어 있고, 시스템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도 않으니 행정업무가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어요. 젊은 교수님들은 행정업무가 너무 많아 학교 생활이 즐겁지 않다고 합니다. 연구에 몰두할 시간도 부족하고요. 이런 문제들은 교수로서의 자긍심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협의회장으로서는 지난 한 학기를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게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교수님들이 잘 협조해 주시고, 학내 처장님들도 잘 도와주셔서 생각보다 수월했습니다. 총장님이나 이사장님도 제 의견에 귀를 많이 기울여주셨어요. 교수님들의 바람대로 어느 정도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한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각 학과나 학부의 대표 교수님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평의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논의된 내용을 전 구성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소식지를 만들어 돌리고 있어요. 학교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이런 사안이 있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했다는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이죠. 저는 이것도 소통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총장선거가 있는 해라 교수협의회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감시하는 게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

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수님들 사이에서 혹시라도 좋지 못한 이야기가 들어오면 차단 조치를 합니다. 문건화해서 전 회원에게 메일을 보내 조심해달라는, 일종의 예방 작업도 철저히 하고 있고요. 근래에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사전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다만 누가 후보자로 나서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는데, 그걸 어느 정도 선에서 알려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조절하는 게 관건입니다. 제가 전공이 법학이라 규정을 주의 깊게 살피는 습관이 있어요.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청탁금지법도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자세히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 공평하고 건전한 선거문화가 자리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수협의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계획을 들려주십시오.** 이전의 교수협의회는 학교가 잘하고 있는지 감시·감독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능 외에 상호 보완하고 협조함으로써 학교 발전을 함께 이끌어가고자 한다고 생각해요. 다행히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저와 함께 하시는 4명의 임원진 교수님들과도 서로 의견이 잘 맞아 희망적입니다. 그리고 회장으로 선출된 날, 회원 교수님들 앞에서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학교와 교수님들을 잇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하겠다,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겠다, 그런 내용이었죠. 그 다짐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제 생활신조가 '행복하자'예요. 학교 구성원들이 모두 행복하게 소통하는데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 Um Hong Gil

네팔 오지에 학교·병원 건립

엄홍길(중국어 02)\_엄홍길휴먼재단 상임이사, 한국외대 석좌교수

## 엄홍길휴먼재단 설립으로 인생 17좌에 도전하다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6좌 완등이라는 대기록을 세운 산악인 엄홍길. 산에서 내려 온 그는 엄홍길휴먼재단을 설립해 인생 17좌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그는 특히 네팔 고산지대 오지마을에 학교와 병원을 지으며 이들의 낙후된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제 산 대신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 내딛고 있는 그의 걸음엔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 준 히말라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다.

이번 네팔 남체의 병원 건립은 엄홍길휴먼재단이 네팔에 세운 첫 번째 의료시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원이 세워진 남체 지역은 에베레스트 산자락 해발 3,450m 고산지대로 의료시설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산행을 돕는 셰르파와 그 가족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고, 에베레스트에 오르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등반대가 모여드는 곳입니다. 워낙 지대가 높아 많은 사람들이 고산병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병원이 없어서 매우 위험해요. 그래서 병원을 짓게 됐습니다. 이번에 방문했더니 산부인과 시설이 없어 산모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 현재 일부 시설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엄홍길휴먼재단을 통해 네팔에 학교를 짓는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셨는데요. 현재 몇 개 학교가 완공되었습니까? 16좌 완등이라는 기록에 맞추어 16개 학교 건립을 목표로 했어요. 모든 게 열악한 고산지대 오지마을에 학교를 짓다보니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재도 헬기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운송비용을 포함한 건축비도 만만치 않아요. 하지만 아이들과 지역 주민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힘을 냈습니다. 흠바닥에 책걸상도 없이 대나무로 열기설기 엮은 지붕을 얹어 비가 오면 수업을 할 수 없던 아이들이 번듯한 건물에서 새 책상, 의자에 앉아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뿌듯합니다. 그렇게 하나씩 완공해 현재 12개까지 학교를 지었어요. 열 다섯 번째 학교도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목표를 이루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혼자 한 일은 아니고, 여러 기업과 단체가 후원해 주어서 가능한 일이었죠.

특히 교육과 의료 시설 건립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팔 고산지대 사람들은 정말 가난해요. 대부분 셰르파 일을 하면서 살아가죠. 산에 오르다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고요. 그 가난의 대물림을 끊으려면 교육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16좌 완등을 하는 동안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한 번은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때 히말라야의 신들에게 “살려서 내려 보내주시면 이 산과 이 곳의 사람들에게 보답하겠습니다”는 간절한기도를 했어요. 기적적으로 목숨을 구했고, 살아 돌아왔죠. 저는 지금 그 약속을 지키는 중입니다. 히말라야가 제게 준 선물을 갚고 있는 셈이죠.

이 쉽지 않은 일을 계속 이어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 시작한 일이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정말 좋은 뜻을 펼치기 위해서라는 걸 많은 분들이 이해해주기 때문에, 그분들의 격려와 응원이 큰 힘이 돼요.

또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게 된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 그 아이들을 보며 행복해하는 부모들의 모습, 그런 게 다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또 다른 일을 계획하게 합니다.

올해 HUFS 석좌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도전과 극복의 대명사이자 멘토로서,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삶은 늘 도전의 연속입니다. 살다 보면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많지요. 제가 세계 최초로 8,000m급 16좌에 모두 올랐지만 실패한 등정까지 합하면 모두 38번을 도전했어요. 그리고 완등까지 22년이 걸렸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매달리면 못할 게 없습니다. 후회는 최선을 다하지 않아 실패했을 때 몰려오는 법이죠. 또 정상에 오르거나 내려가는 것도 잘 해야 합니다. 저는 16좌 완등을 한 뒤 한동안 마음을 잡지 못했어요. 허전한 마음에 석 달간 방황하다 정신을 차리고 엄홍길휴먼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등반이 아닌 인생 17좌에 도전하고 있는 중이죠. 새로운 목표를 향해 갈 때는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자신은 극복의 대상인 동시에 믿어야 할 존재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믿고 사랑하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

제주항공 리프레시 마케팅·광고 공모전 대상 수상  
 김준형(영어통번역학과 13)  
 류승엽(일본어학전공 13)  
 임지선(국제통상학과 14)

# Your flight is

제주항공은 대학(원)생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올해로 3회째 '리프레시(Refresh) 마케팅·광고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제주항공의 상용고객 우대 프로그램인 '리프레시 포인트 활성화'를 통한 재구매 유도방안과 벨류 얼라이언스(Value Alliance) 등 항공사 네트워크를 활용한 마케팅 방안, 모바일 활용 마케팅 활성화 방안 등이었다.

HUFS 통역협회에서 활동하며 만난 세 사람은 '너의 비행은(Your flight is)' 팀을 결성, 공모전 참가를 위해 의기투합했다. 전공은 다르지만 김준형·류승엽 학생의 경우 경영학을 이중전공으로 하고 있고, 국제통상학을 전공하는 임지선 학생 역시 마케팅과 관련이 있다는 공통점이 이들을 하나로 묶었다.

"공고가 처음 난 건 2월 중순 쯤이었어요. 제주항공의 상용우대 프로그램이나 모바일 활용 프로세스 등은 직접 경험해봐야 할 것 같아서 저는 다른 친구랑 2월 말에 제주항공을 타고 홍콩 여행도 다녀왔어요. 사전 조사를 많이 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 눈에는 이것저것 보이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간 친구한테 일반 탑승객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끼는지, 뭐가 불편한지 등 질문을 많이 했어요. 자료에 쓰려고 사진도 많이 찍었고요. 이 경험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팀의 리더였던 김준형 학생은 여행에서 돌아와

곧바로 작업을 시작했다. 이들이 선택한 주제는 '모바일 활용 마케팅 활성화 방안'이었다. 제주항공은 다른 항공사와 달리 모바일 앱과 웹을 통한 홍보에 매우 적극적이다. 국내 항공업계에서 공식 페이스북 팔로워수가 가장 많은 페이지를 보유 중이고, 제주항공 모바일 앱 설치를 위한 프로모션도 자주 진행한다. 이민호, 김수현, 송중기 등 스타를 활용한 SNS 마케팅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저비용항공 간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특별한 차별화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가격이나 출발 시간은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비스 차별화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하는 방식을 고안했어요. 항공기라는 오프라인과 제주항공 어플리케이션을 결합시킨 거죠. 어플리케이션에 QR코드를 대면 제주항공 서포터즈들이 작성한 여행 가이드북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일종의 온라인 가이드북이 되는 것이죠. 미리 다운로드를 받으면 비행기 안에서도 볼 수 있어요. 이와 함께 메신저, 위치기반 서비스 등 실시간 참여가 가능한 제주항공만의 앱을 개발하자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김준형 학생은 "대상까지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깜짝 놀랐다"며, "전문 심사위원 외에도 청중 평가단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아 더 기분이 좋았다"고 한다.

## 전문 심사위원과 청중 평가단이 함께 평가하는 방식

이번 공모전은 제주항공 사장을 비롯한 전문가 3명과 100명의 청중 평가단이 함께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본선에 진출한 10개 팀에게는 각각 10분 간의 프리젠테이션 시간이 주어졌다. 프리젠테이션이 끝나면 청중 평가단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잘했다고 생각한 팀에게 비행기를 날리고, 스크린에 뜬 비행기 사진 위로 득표수가 표시되는 식이다. 1팀당 1인 최대 5개의 비행기를 날릴 수 있다.

대상 수상과 함께 이들은 상금 300만원과 국제선 왕복항공권(각 팀원 1매), 제주항공 인터넷 기회와 입사지원서 서류전형 면제 및 면접전형 가산점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 3학년인 김준형 학생은 여름방학에, 류승엽 학생은 겨울방학에 인터넷을 진행할 예정이다. 4학년에 재학 중인 임지선 학생은 이미 다른 인터넷 중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기회를 양보했다고 한다.

졸업 후 어떤 분야에 진출할 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는 세 사람. 이들은 "이번 공모전 덕분에 마케팅 업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배운 것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들의 아이디어는 '마케팅과 광고 전략에 대한 대학생들의 신선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찾는다'는 공모전 취지에 맞게 앞으로 제주항공의 다양한 마케팅 활동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 모바일 활용한 마케팅 활성화 방안 제시

지난 4월 제주항공이 실시한 '제3회 리프레시(Refresh) 마케팅·광고 공모전'에서 HUFS '너의 비행은' 팀이 대상을 수상했다. 김준형(영어통번역학과 13), 류승엽(일본어학전공 13), 임지선(국제통상학과 14) 학생 3명으로 구성된 '너의 비행은' 팀은 QR 코드를 활용한 마케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대상의 영광을 안았다.



# HUFS, 아너스프로그램 Honors Program 을 통한

## 특수외국어 전문 인재 양성으로 차세대 국가 성장 동력을 마련하다

HUFS는 개교 이래 지금까지 '어문학과 지역학'을 기반으로 한 특수외국어 분야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 특수외국어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사립대학인 HUFS가 이 역할을 수행했다.

국가 간 문호가 넓어지고 다양해진 지금, 특수외국어 교육 인프라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지난 3월,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특수외국어교육법)'에 따른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5개년 기본계획(2017년~2021년도)'을 발표했다. 특수외국어교육법에 규정된 언어는 모두 53개로, 특수외국어에 대한 사회수요를 고려하여 대학교육을 개선하고 대학에서 배출된 인력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전략 및 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 “특수외국어 지원은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권혁재 교수(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이념에 상관없이 경제와 문화를 중심으로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특수외국어는 중요한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도 국가 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필요한 언어를 ‘특수외국어’로 지정하고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5개년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특수외국어 교육 현황, 추진 방향 등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에 참여한 권혁재(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교수를 만났다.



## 세계 주요국들은 특수외국어 교육을 국가 역점사업으로 진행

현재 특수외국어 교육 과정은 국내 8개 대학과 14개 대학원에 관련 학과(전공)가 있다. 국가가 지정한 특수 외국어 53개 중 국내에서 교육하는 언어는 33개로, HUFs의 27개 학과가 여기에 해당된다.

‘특수외국어교육진흥법’은 글로벌 시대를 맞아 국내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국가 교류 다변화 및 해외 취·창업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대·내외적 수요를 반영해 마련됐다. 우리나라의 외국어 정책이 영어에 지나치게 집중되었고, 제2외국어 교육 역시 특정 외국어에 편중된 현실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이러한 배경 하에 교육부(시행 기관은 국립국제교육원)는 최근 정책연구, 공청회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5개년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는 특수외국어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과정 개선, 평가 기준 마련, 교원 및 학생 전문성 제고, 교육 환경 개선 등 특수 외국어 교육에 맞게 대학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에 발표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5개년 기본계획’은 특수외국어 실태조사 및 수요분석, 특수외국어 학부교육 내실화,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인력 양성 및 활용, 특수외국어 교육 저변 확대 및 인프라 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특수외국어에 관한 전문성과 교육역량을 갖춘 대학을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해당 대학이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과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5개년 기본계획’을 위한 기초조사를 맡았던 권혁재 교수는 “세계 주요 나라들은 오래 전부터 특수외국어 교육을 국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를 통해 전략 국가와의 교류 및 정보 수집에 필요한 국가적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언어에 대한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며, “국가적·문화적 커뮤니케이션은 인공 지능이 대체할 수 없고, 언어라는 도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 간 장벽이 빠르게 허물어지고 국가와 기업의 전략지역 범위가 이전에 비해 훨씬 넓어짐에 따라 특수외국어 전문 인력의 수요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 특수외국어 분야 지원,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추진돼야

정부가 지정한 특수외국어 중 하나인 크로아티아어를 가르치는 권혁재 교수는 그 누구보다 이 법의 시행을 반긴다. 그는 “흔히 인문학의 위기를 말하지만 어문학의 상황은 더 열악하다”며, “수익이 나지 않으니 출판사들이 전문서적의 출판을 꺼리고, 소수언어 학과라 학과 구조 조정 이사가 나오면 가장 먼저 위기의식을 느낀다”는 말로 특수외국어 분야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특수외국어가 차세대 성장 동력이라는 사실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실제로는 정부 기관이 아닌 HUFs라는 사립대학의 투자와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라며 “이제라도 지원책이 마련된 것은 무척 반가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동유럽 나라들의 예를 들면 미수교국에서 수교국으로 상황이 바뀌고, 기업들이 진출하게 되었을 때 우리 졸업생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특수외국어 인재를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거시적인 안목에서 반드시 양성해야 합니다.”

앞으로 시행될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에 따르면 대학은 특수외국어에 대한 수요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학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원언어를 선택하고 해당언어에 대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모델을 개발한다. 학부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는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충분한 교수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원 대상 국내외 역량강화 연수를 추진한다. 특수외국어 전공 교원의 채용을 확대하며 학문후속세대가 육성될 수 있도록 박사과정 연수 등을 지원하고, 교원 간 정보교류 기회도 확대한다.

특수외국어에 대한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평가·인증체제도 마련된다. 특수외국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일반인 및 기업·지자체 대상 특수외국어 교육을 확대하고, 우수한 특수외국어 관련 강의는 공개한다. 아울러 특수외국어 교육 인프라가 국내외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대학-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정기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대학은 특수외국어 현지 대학 및 국제기구와의 학술교류협정(MOU)등을 체결하여 전문가 및 학생 등 인적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권 교수는 “특수외국어 지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지속가능성”이라며, “특수외국어를 진정한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장기간 꾸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너스프로그램  
Honors Program

# 교환학생+인턴십, 특화된 현지 교육으로 지역 전문가를 키우다

HUFS는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과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결합한 전략지역전문가 '아너스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서울 및 글로벌캠퍼스 21개 학과에서 학과별 각 4명의 학생을 선발한다. 한 학기는 자매 대학 및 부설어학원 교과과정을 경험하고, 한 학기는 HUFS와 연계된 기관(KOTRA 무역관, 한국무역협회 등), 해외진출 동문기업, 학과연계 협력기업 등에서 인턴으로 일하게 된다.

아너스프로그램은 현지에서의 특화된 교육을 통해 정부 및 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글로벌 맞춤형 인재로 키우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해외 인턴은 취업 진로센터에서 학생 진로 상담 및 현지 기업·기관 현황에 따라 배정한다. 1기 학생들은 크로아티아 국립박물관, 폴란드 문화원, 그리스 삼성전자 등에서 인턴 근무를 마치고 돌아왔다.

올해는 서울캠퍼스의 몽골어과, 베트남어과, 아랍어과, 이란어과, 인도어과, 태국어과,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포르투갈어과와 글로벌캠퍼스의 그리스·불가리아학과, 브라질학과, 아프리카학부, 인도학과, 중앙아시아학과, 루마니아어과,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우크라이나어과, 체코·슬로바키아어과, 폴란드어과, 헝가리어과, 아랍어통번역학과, 태국어통번역학과 등이 대상 학과다.

3개 학기 이상, 7개 학기 미만 등록자를 대상으로 하며, 비전공자나 이중전공자, 부전공자는 지원할 수 없다. 국내외 타 대학 및 기관에서 정규학기 교류학점을 인정받은 적이 없어야 하지만 방학이나 휴학 중 해외연수로 단기학점(6학점)을 인정받은 경우는 지원 가능하다. 참가 프로그램 기간 중에는 휴학할 수 없고, 아너스프로그램을 마지막 학기로 졸업할 수 없다. 양 캠퍼스 복수전공예정자의 경우 마지막 학기(8학기)는 인턴 파견이 불가능하다. 학업성적은 평점 평균 3.0 이상이어야 한다. 선발 학생들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1년 간 최대 33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고, 총 1,000만 원의 아너스 장학금을 받는다.

이밖에도 진로취업지원센터에서의 진로상담 및 사전·사후 직무교육 기회가 제공되며 해외취업을 목표로 하는 경우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교육이 이루어진다.

아너스프로그램은 시행 1년여 만에 참여 학생이 1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1학기에 28명이 선발돼 베트남과 터키·아제르바이잔 등 15개국에 파견됐고, 2학기에는 35명(11개국)이 해외로 떠났다. 올 1학기에도 39명의 학생이 18개국에서 학업과 직무 경험을 동시에 쌓고 있다. 

아너스프로그램을 수료하며

홍윤주(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14)  
크로아티아 스플리트 대학교 & 자그레브 상공회의소  
2016.02.29~2016.12.23



한국과 크로아티아를 잇는  
무역사절단의 임무를 톡톡히 해내다

정부 및 기업 해외 진출 맞춤형 교육을 통한 전략지역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HUFS 아너스프로그램을 통해 제가 가장 이루고 싶었던 목표는 언어 능력의 향상이었습니다. 대학생이 사용하고 배울 수 있는 단어와 문장들, 그리고 인턴십을 수행하는 사회인이 사용하는 단어와 문장들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금 더 전문적이고 난이도가 높은 언어 환경에서 실제 직무를 수행하면서 저의 해외 직무 수행능력을 고취하는 것에도 도움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기대를 품고 떠난 아너스프로그램의 첫 학기에는 스플리트 대학교 부설 어학원에서 교과과정을 수학하였고, 두 번째 학기에는 자그레브의 상공회의소에서 장기현장실습을 진행했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실습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부서였던 Overseas Markets Unit, International and EU Affairs Sector로 출근하였습니다. 크로아티아와 한국의 경제 및 문화 교류가 점차 증대됨에 따라 포럼이나 바이어 미팅 등 또한 자주 진행되었고, 이에 따

라 한국어로 된 안내문이나 문서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영어, 크로아티아어, 한국어 세 가지 언어로 된 안내문을 작성하거나 이를 번역하는 일이 주를 이루었고, 이 틈에서 저는 주로 상공회의소 내부에 구비할 서류들을 번역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에 관련된 상공회의소 인프라가 구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 기업들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이를 교정하는 작업도 함께 수행했습니다. 또한, 상당히 많은 크로아티아 기업으로부터 한국 시장에 대한 리포트 작성을 요청 받기도 했습니다. 주로 한국에 식품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크로아티아의 기업들이 저의 한국의 식품 선호도를 알려 달라는 요청이 가장 많았고, 이미 시장 진입을 마친 회사들은 한국의 비즈니스 예절이나 문화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업들과 한국 기업들의 거래를 주선해 주기도 하고, 한국-크로아티아 경제 포럼, 중국-크로아티아 사업 계획 설명회 등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관련된 각종 미팅 및 행사들도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 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고 꿈을 더욱 구체화 시키다

연수 전과 연수 후의 모습을 비교했을 때, 먼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언어적인 부분입니다. 외국어를 말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걱정 때문에 외국인이 지나가면서 크리스마스 인사만 건네도 몸이 얼어붙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너스프로그램에 참여한 1년 동안 일상에서, 그리고 업무에서 친구와 동료들과 영어를 한국어처럼 사용하다 보니, 외국어를 모국어 하듯 생각과 동시에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업무적인 부분입니다. 학생인 만큼 지금까지 해 본 경제 활동은 카페나 리셉션 아르바이트가 전부였기 때문에, 회사에서 사무직 일을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저를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회사 동료들의 친절함 덕분에 마치 전부터 해 왔던 일처럼 업무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단점을 극복할 수 있었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근무했던 기업의 특성상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을 반복했는데,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 탓에 처음에는 말도 안 나오고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하고는 했는데,

회를 거듭할수록 자연스럽게 인사말이 나갔고,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것이 문제인지 기본 나쁘지 않게 물어보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직접 생활하고 업무를 수행하며 옛날부터 어렵뽕하게 꿈꿔왔던 외국에서의 삶에 대한 꿈을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 장기현장실습을 해보기 전에는 해외에서 생활하는 것이 두렵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외국에서의 업무나 생활에서 오는 모든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다 보니 외국에 대한 막연했던 두려움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변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졸업 후에도 다시 전공 지역에 방문하여 이미 차후 협업을 하기로 약속을 해 놓은 크로아티아 상공회의소 담당자와 지속적으로 업무를 더 해 볼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현지 근무 경험과 지식을 쌓아가는 것은 물론, 현지 언어 또한 꾸준히 학습하여 훗날 아시아와 유럽, 한국과 크로아티아를 이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대학가에서 인문계열의 저조한 취업률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HUFS 특수외국어학과는 예외다. 해마다 학과 평균 60~70%가 넘는 취업률을 기록하며 다른 대학 이공계 평균 취업률을 가뿐히 뛰어넘는다. 태국어과 박경은 교수는 “미개척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특수외국어학과 졸업생은 잠재력을 갖춘, 준비된 인재이기 때문”이라고 인기 이유를 설명했다.

## “취업 시장에서의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은 특별한 경쟁력입니다”

박경은 교수(태국어과)



### 해마다 고공행진하고 있는 특수외국어과 취업률

현재 HUFS에는 총 27여 개의 특수외국어과가 설립돼 있다. 서울캠퍼스에는 서양어대학에 이탈리아어과, 포르투갈어과, 네덜란드어과, 스칸디나비아어과가 개설돼 있고, 아시아언어문화대학에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아랍어과, 태국어과, 베트남어과, 인도어과,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이란어과, 몽골어과가 있다. 글로벌캠퍼스에는 동유럽대학에 폴란드어과, 루마니아어과, 체코·슬로바키아어과, 헝가리어과,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우크라이나어과가 있으며 통번역대학에 아랍어통번역학과를 비롯한 총 4개 학과, 국제지역대학에 아프리카학부를 비롯한 총 5개 학과가 개설되어 있다. 이들 학과의 취업률은 최근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알려지며 큰 관심을 모은 바 있다. 당시 집계된 통계를 살펴보면, 베트남어과가 93.8%라는 대기록을 세운데 이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마인어과)와 인도어과가 71.4%, 이란어과는 69.2%, 이탈리아어과 68.8% 등 학과 평균 60% 이상의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 2009년 신설된 몽골어과도 66.7%를 기록한 것을 비롯, 포르투갈어과 63.6%, 태국어과 61.9%, 아랍어과 57.5%, 루마니아어과 57.1%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같은 해 대학가 공학계열 평균 취업률이 65.6%임을 감안하면 놀라운 수치다.

특수외국어 학과의 취업률 고공행진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베트남어과는 몇 년째 부동의 1위다. 한국 유통 기업들이 대거 베트남으로 물러가며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데 따른 것. 동남아시아가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고 인도네시아가 정치적으로 안정됨에 따라 마인어과의 취업률도 계속 상승세다. 이란어과도 이란과 미국의 화해무드가 조성됨에 따라 2012년 35.7%이던 취업률이 2014년 69.2%로 뛰어올랐다. 서방의 경제제재를 받던 이란이 국제사회와 핵 협상에 나서면서 중동에서 활로를 찾는 한국 기업이 많아진 덕분이다.

### HUFS 특수외국어과 졸업생은 준비된 지역전문가

태국어과의 최근 3년 간 평균 취업률(2012~2014)도 77.6%에 달한다. 태국어과가 단독 학과로 개설된 곳은 국내에서 HUFS가 유일하다. 박경은 교수는 특수외국어과 학생들이 취업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 “특수외국어라는 비장의 무기를 하나 더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수외국어 전공 학생들은 스펙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보통 경영학을 부전공으로 하고, 영어 성적에도 신경을 쓰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같은 조건이라면 특수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에게 더 관심이 가지 않을까요? 게다가 해당 기업이 그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에 진출할 계획이 있다면 더욱 그렇겠지요.” 그는 “예전에는 전공을 살리는 취업의 경우 아주 극소수가 태국과 관련된 정부 부처에 별정직으로 채용됐는데, 요즘은 대기업에서의 채용이 늘었다”며, “태국이나 아세안 시장에 진출 예정인 회사들에게 태국어과 졸업생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준비된 지역 전문가로 인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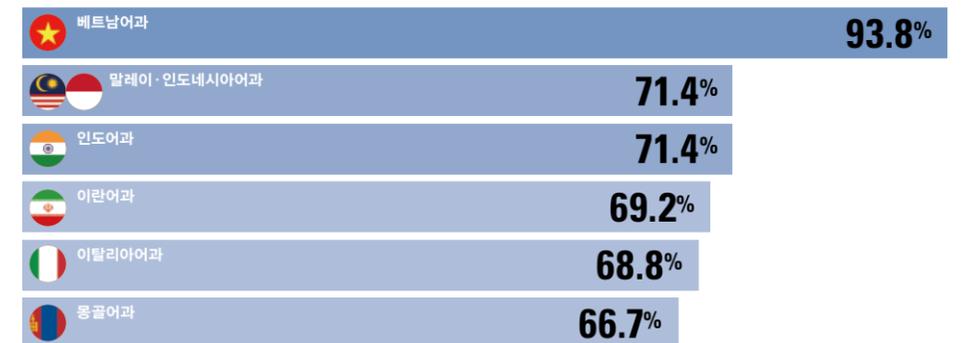
“HUFS의 글로벌 프로그램 덕분에 학생들의 실력이 더욱 향상되고 있다는 점도 취업률이 높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태국어과의 경우 거의 모든 학생들이 1학년 겨울방학을 이용해 한 달 정도 단기연수를 다녀옵니다. 태국어를 집중적으로 배우고 문화 체험도 함께 하면서 6학점을 이수하는, 일종의 계절학기 같은 개념이죠. 이밖에도 교환학생이나 한 학기를 외국에서 하는 7+1, 아너스프로그램, 인문학 지원사업인 코어(CORE)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아 재학 중 대부분 태국 현지 경험을 합니다. 원어 연극, 태국어 경시대회, 회화 모임 등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소모임도 많아요. 특히 회화 모임은 다른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태국인 유학생들도 함께 참여해 양국 학생들이 활발히 교류하고 있습니다.”

태국어과에서는 3학년이 되면 인접 국가인 라오스어도 배운다. 두 나라 언어가 약 70%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 비교적 쉽게 익힐 수 있다고 한다. 라오스 역시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부쩍 늘고 있는 지역이라 태국어과 학생들의 취업 전망은 더욱 밝다. “태국어과가 올해 51주년을 맞았습니다. 태국어는 배우기가 쉽지 않아요. 태국어를 잘 구사하는 인재 하나를 기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그만큼 장기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른 특수외국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특수외국어 전공자들을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는 건 어려운 환경에서도 특수외국어 교육에 헌신한 HUFS의 공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수외국어는 지금 수요가 없다고 해서 폐지하거나 소홀히 하면 급격히 변화하는 미래에 대비할 수 없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름도 생소해 소외됐던 학과들이 지금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는 인기 학과로 바뀐 것이 좋은 예입니다. 특수외국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지원을 통해 앞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인재들을 더 많이 길러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태국어과에서는 3학년이 되면 인접 국가인 라오스어도 배운다. 두 나라 언어가 약 70%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 비교적 쉽게 익힐 수 있다고 한다. 라오스 역시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부쩍 늘고 있는 지역이라 태국어과 학생들의 취업 전망은 더욱 밝다.

“태국어과가 올해 51주년을 맞았습니다. 태국어는 배우기가 쉽지 않아요. 태국어를 잘 구사하는 인재 하나를 기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그만큼 장기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른 특수외국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특수외국어 전공자들을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는 건 어려운 환경에서도 특수외국어 교육에 헌신한 HUFS의 공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수외국어는 지금 수요가 없다고 해서 폐지하거나 소홀히 하면 급격히 변화하는 미래에 대비할 수 없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름도 생소해 소외됐던 학과들이 지금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는 인기 학과로 바뀐 것이 좋은 예입니다. 특수외국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지원을 통해 앞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인재들을 더 많이 길러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HUFS 주요 특수외국어과 취업률  
(출처: 한국경제 2015. 5. 25.일자 1면)



서울캠퍼스 발전협력팀

# 학교발전기금 모금으로 HUFS의 성장 동력을 만든다

어느 조직이든 안정적인 재원 확보는 조직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 요소다. 동문·기업들과 소통하며 기부를 이끌어내는 발전협력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윤경욱 팀장을 포함한 6명의 팀원들은 '학교의 미래를 만든다'는 사명감으로 발전기금 모금을 위해 뛰고 있다.

발전협력팀의 업무는 크게 학교발전기금·장학금 모금과 동문 관리로 나뉜다. 동문이 주요 기부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두 업무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윤경욱 팀장은 발전협력팀의 특징으로 '전문성'과 '사명감'을 꼽았다. "기부를 이끌어내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기부자의 성격, 취향도 잘 알아야 하고, 기부철학을 파악해 학교의 이슈와 연결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일종의 노하우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 것들은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잦은 보직 변경보다는 담당직원의 전문성을 키우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많은 대학들이 발전협력팀을 중심으로 '모금 전문가' 양성에 나서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모금 업무의 특성상 이런 저런 고충이 많기 때문에 '지금 내 업무가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사명감 없이는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HUFS 사랑, 만만혜(萬萬惠) 캠페인

윤팀장은 "동문들의 관심과 후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하고, "명문대학 수준에 맞는 동문들의 학교사랑이 학교 발전의 원동력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 발전협력팀에서는 지난 4월부터 '만만혜(萬萬惠)'라는 소액 기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만만혜는 '외대가족 1만 명이 매월 1만 원씩 기부해 외대인 모두가 혜택을 누린다'는 뜻이다. 월 1만 원씩 1만 명이 기부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12억 원, 1천억 원 기금의 이자에 해당하는 액수다.

캠페인이 첫 선을 보인 건 4월 20일 개교기념식에서였다. 당시 상영된 홍보 영상에는 산악인이자 HUFS 석좌교수인 엄홍길(중국어 02), 배우 안성기(베트남어 70), 개그맨 김준현(철학 99), 아나운서 이현주(미디어 커뮤니케이션 03) 동문이 등장, 영상 메시지를 통해 동문들에게 만만혜 캠페인 참여를 독려했다. 특히 엄홍길 석좌교수는 영상 촬영 직후 곧바로 약정서에 사인함으로써 만만혜 캠페인 1호 약정자가 되었다. 만만혜는 기부자가 기금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100% 학교 발전기금으로 쓸 수 있고, 학교발전기금 50%에 나머지 50%는 지정학과(부) 장학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 캠페인을 담당하고 있는 이소영 과장은 "친구와 커피 한 잔 마시는 정도의 금액으로 기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사회 초년생을 비롯해 많은 동문들이 참여해 기부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부자 예우를 위한 명예의 전당 헌정

지난해 발전협력팀은 기부자들의 뜻을 기리고 예우하기 위해 대학본부 1층 로비에 명예의 전당을 조성했다. 길이 11.6미터, 높이 4.5미터 규모 벽면에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이름이 새겨진 동판을 붙였다. 각각 금액별로 밀레니엄 클럽(5억 원 이상), 센테니얼 클럽(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미네르바 클럽(5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으로 나누어져 있다. 현재 총 995명의 이름이 등재된 상태다.

스마트도서관 건립 기금 조성

또한 올 초까지는 스마트도서관 건립 기금 모금에 주력했다. 양 캠퍼스의 낡고 오래된 도서관을 최첨단 건물로 증·개축하는 사업으로 동문들의 힘을 모아 현재까지 약 130억 원을 모금했다.

윤팀장은 지난 2015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스마트도서관 건립 캠페인 선포식을 언급하며 "한 편의 드라마 같았다"고 말했다. 밤 10시가 넘는 시간, 끝내 100억을 채우지 못하고 93억으로 마무리가 될 즈음 휠라글로벌 윤윤수 회장이 손을 들었다. 그는 "제가 채우겠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7억을 약정했다. 이 장면은 참석한 외대 가족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었다. 올 봄에는 이 금액을 완납함으로써 그 당시의 감동을 재연하였다. 윤팀장은 이 지면을 통해 스마트도서관 건립기금 130억 원 약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모든 기부자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다. "선진국으로 가면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현상 중 하나가 기부, 봉사문화의 확산입니다. 국가가 미처 돌보지 못하는 부분을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서로 돕는 운동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기부 기회가 많아지죠. 그 중에서도 모교에 대한 기부는 나 자신을 위한 일이 될 수 있어요. 발전기금이 모교의 성장동력을 만들고, 모교가 발전하면 모교에 대한 자부심이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학교를 발전시키는 일은 농사와 같아서, 함께 물을 주고, 땅을 일구어야 합니다. 땅이 좋아야 나무가 잘 자라는 법이죠. 발전 속도가 빠른 대학일수록 동문의 기부가 활발합니다. 학교 발전은 발전협력팀 직원들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 동문, 학부모, 지역사회가 한 마음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이번 기회를 빌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1\_이상철 회장 강의를 동반 제막식  
02\_암인집 동문 명예의 전당 동판 헌정식  
03\_윤윤수 FILA Global 회장 발전기금 기탁식



왼쪽부터 권순원 대리, 박유나 담당, 유병현 대리, 윤경욱 팀장, 이성현 과장, 이소영 과장



## 2016학년도 동계 HUFS 글로벌봉사단을 다녀와서

공민준(경영 12)

# 진짜 베트남을 만나고 소통하기에 더할 나위 없었던 행복한 시간

### 서로의 진심어린 마음을 나누다

전역 후 맞이하는 첫 방학에 나는 무엇이든 하고 싶었다. 우연히 홈페이지에서 HUFS 글로벌봉사단 모집공고를 보고 난 후 나의 겨울방학 계획은 단연 봉사단에 참가해 보는 것이었다. 특히 이번 봉사단의 목적지가 베트남이라는 것에 가장 큰 매력을 느꼈다. 평소 베트남에 큰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 나라의 문화와 음식을 직접 보고 느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봉사단원으로 선정되어 함께 떠날 단원들과 베트남에서 진행할 교육 및 문화봉사 프로그램을 준비하며 출국할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2월 3일, 드디어 우리는 베트남으로 떠났다. 첫 목적지였던 다낭에서는 베트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지역 탐방이 이루어졌다. 통역을 도와주었던 베트남의 현지 대학생들 덕분에 우리는 베트남이란 나라와 조금 더 빨리 가까워질 수 있었다.

그 후 광남의 Phan boi 초등학교에서 HUFS 글로벌봉사단의 핵심 목표인 교육 봉사를 시작했다. 생각보다 무더웠던 베트남에서 밤을 지새우며 수업을 준비하고 문화공연을 연습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맘으로 범벅이 된 채 지쳐서 주저앉

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한 수업을 듣고 공연을 즐기며 기뻐하는 아이들을 보면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다. 그리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순간들도 많았다. 한 번은 수업 중 가위질에 열중하고 있는 아이의 옆에 앉아있었다. 서둘러 서인지 여러 차례 어긋나기도 했고 한숨을 쉬는 모습이 귀엽기도 했다. 도와주려 했더니 스스로 하겠다며 고집을 부렸다. 그렇게 가위질이 마무리될 때까지 지켜봤다. 아이의 모습에서 어렸을 때의 서툰 내가 보였고 모든 수업, 모든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이곳 아이들의 모습에 감동해 살짝 눈물이 맺히기도 하였다.

봉사활동의 대미는 한국 문화를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는 문화공연으로 장식했다. 태권도 기합 소리에 열광하는 아이들, K-POP 춤을 함께 따라 추는 베트남 선생님들을 보며 정말 힘들게 연습한 만큼 감동과 보람을 함께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우리는 Phan boi 초등학교의 아이들과 함께 공부는 물론,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는 등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며 봉사활동을 마무리하였다.

HUFS는 학생들의 봉사정신 함양 및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질을 키우기 위해 매년 하계와 동계, 두 차례로 나누어 세계 각지로 HUFS 글로벌봉사단을 파견하고 있다. 지난 2016학년도 겨울에도 총 16명의 학생이 HUFS 글로벌봉사단원으로서 베트남을 다녀왔다. 이번 봉사단에 참여하며 광남의 Phan boi 초등학교에서 교육봉사를 진행했던 공민준 학생은 잊지 못할 인연들을 만나고 왔다는 소감을 전하며 베트남에서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꺼내놓았다.

### 머나먼 타국에서 잊지 못할 소중한 인연들을 선물 받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쏠살같이 지나가 버렸고, 베트남에 익숙해질 무렵 우리 봉사단은 떠나야만 했다. 언제나 곁에서 통역을 도와주었던 현지 대학생 친구들과 선물을 교환하며 작별인사를 나누었고, 아이들과는 다음을 기약하며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다. 아쉬움에 발걸음이 험사리 떨어지지 않았지만, 이 또한 추억이라 생각하며 가슴에 새겼다.

감동과 보람으로 가득했던 봉사활동은 나에게 소중한 인연들을 선물해주었다. 처음 보는 사이임에도 친절하고 상냥하게 우리를 환영해줬던 대학생 친구들은 우리와 초등학교 아이들 사이에서 원활한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어 봉사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움을 주었다. 그 친구들의 선한 인상과 웃음은 베트남에 대한 이미지를 더욱 좋게 만들어주었다. 그리고 먼 타국에서 달려온 우리를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들여준 베트남의 아이들 역시 이번 봉사활동에서 얻은 소

중한 인연이다. 더운 날씨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우리를 잘 따르며 봉사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해 준 아이들이 지금도 정말 고맙다. 함께 웃고 뛰놀았던 시간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내 가슴에 자리 잡았다.

나는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얻음으로써 베트남의 새로운 모습들을 보았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고 행복해 보였던 아이들, 타지인에게 더없이 상냥했던 대학생 친구들 덕분에 기존의 긍정적 이었던 이미지에 활기차고 온화한 이미지가 더해졌다. 그래서 꼭 언젠가 여행이 되든 또 다른 봉사가 되든, 베트남을 찾아가 내가 보고 느꼈던 것들을 다시 경험하고 싶다. 베트남에서 보냈던 일 주일을 통해 베트남에 대한 애정은 더욱 깊어졌고, 즐거웠던 기억을 한아름 가지고 한국에 돌아왔다. HUFS 글로벌봉사단과 함께했던 베트남은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다낭 해변에서 단원들과 함께



Phan boi 초등학교 수업장면



문화공연으로 준비한 태권도



교육봉사를 모두 마친 단원들

# 아이돌이 주인공이 되는 축제보다, HUFS만의 개성 담은 지역 문화축제로

해마다 4~5월이면 대학 캠퍼스는 축제의 장이 된다. 하지만 최근의 대학 축제는 지나친 상업화와 함께 본래 취지가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명 연예인의 섭외 경쟁이 과열되는가 하면, 유료화를 넘어 암표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에 HUFS 대동제의 현재 모습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민형 교수  
지식콘텐츠학부



김범석 과장  
학생지원팀



최인영 학생  
이란어과 14



외국의 사례를 보면,  
대학이 위치한 지역 사회가 동참하는  
지역 축제같은 형태가 많아요.  
HUFS가 그런 모범사례가 되면 좋겠네요.

99

**김민형** 요즘은 대학 축제 때 아이돌 같은 유명 연예인이 오는 게 당연한 일이 된 것 같아요. 제가 96학번인데, 저희 때도 그런 게 있긴 했어요. 이적이나 박진영 같은, 당시 인기있던 대학생 가수들이 주로 축제 무대에 섰지요. 같은 대학생이라 서로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고.

**김범석** 요즘은 래퍼들이 대세입니다. 여전히 아이돌을 고수하는 대학도 있긴 하지만 트렌드가 바뀐 것 같아요.

**최인영** 맞아요. 제가 새내기였을 때만 해도 학교 축제 때 아이들이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방송 트렌드가 힙합으로 바뀌면서 래퍼들을 선호하게 된 거죠. 힙합은 다같이 뛰어 놀기 좋은 장르라 축제에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김민형**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학교마다 음악 밴드가 있어서, 축제가 그들의 공연을 즐기는 장이기도 했어요. 학교 자체의 개성이 있었죠. 요즘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최인영** 지금도 학교 밴드들이 축제 무대에 많이 서기는 해요. 연예인들의 무대가 마련되기 전에 공연을 하면서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학생들이 관심사는 연예인이죠.

**김범석** 어느 축제나 연예인 무대가 클라이맥스 역할을 합니다. 대학 축제 기간에 '어느 대학에 누가 온다더라', 이런 정보가 많이 돌아다녀요. 또, 학생들끼리 학교마다 서열을 정한다고 해요. '재미있다' '보통이다' '재미없다' '노잼이다' '핵노잼이다', 이런 식으로요.

**최인영** 저도 서열에 관한 얘기 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새내기 때만 해도 저희 학교는 '노잼'에 속했어요(웃음).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학교에 놀러가자는 의견이 많았죠. 그런데 작년부터 '재미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콘텐츠가 좋고, 다른 학교들처럼 시골벽적이진 않지만 만족스럽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김범석** 매년 특정한 주제를 잡아 운영하는 게 주요했던 것 같아요. 가령 '전통'을 주제로 한 해에는 한복을 입고 대형 옷을 만들어서 외국인 학생들과 옷놀이하는 자리도 만들고, 무대도 꾸미는 등 한국적인 요소를 많이 가미했어요. HUFS만의 특색을 살린 축제라 더 반응이 좋았죠.

**최인영** 축제가 끝나고 페이스북 커뮤니티인 한국외대 대나무숲에 올라오는 의견들을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다른 학교들을 따라가지 말고, 지금 우리의 특징을 살린 축제가 좋으니 여기서 더 발전시켜주세요.

**김범석** 외대라는 특징을 살려 학과별로 그 나라 전통음식을 준비한 것도 좋았어요. 터키의 케밥, 러시아의 사슬릭, 인도의 카레, 이런 식으로요. 우리 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왔었어요. 다른 대학에서는 하기 어려운 콘텐츠죠.

“

다른 학교들을 따라가지 말고  
지금 우리의 특징을 살린 축제가 좋으니  
여기서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99





**HUFS의 특징을 살려  
학과별로 그 나라  
전통음식을  
준비한 것이 좋았어요.  
다른 대학에서는 하기  
어려운 콘텐츠죠.**



**김민형** 맞아요. 외국의 여러 사례들을 보면, 대학 축제가 학교 담장 안에서만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학교가 위치한 지역 사회가 동참하는, 지역 축제같은 형태가 많아요. 우리학교가 그런 모범사례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최인영** HUFS 축제는 외대생 축제가 아니라 이문동 축제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처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 오고, 중고교생들이 하굣길에 들르기도 하고요. 각 과마다 전통음식, 전통의상 체험 이런 프로그램들을 준비했을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외국인 교수님들이랑 자녀들도 좋아했구요.

**김민형** 대학 축제에 연예인을 섭외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상업화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학생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견인지 궁금하네요.

**최인영** 정말 유명한 연예인이 오는 곳은 섭외 비용이 비싸서 그런지 유료화를 한 곳도 있어요. 그래서 압표 거래도 생겨나고, 그 정도까지 가는 건 심하지만, 연예인 섭외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연예인이 온다고 하면 관심도가 정말 높아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

이 많이 모이고, 그 근처에서 하는 동아리나 학과 부스도 활성화되고, 학생들의 참여도 활발해지는 장점이 있어요. 우리끼리만 하다 끝나면 뭔가 여운이 남는데, 연예인이 와서 팡 터뜨리고 가면 뭔가 기분 좋게 마무리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진짜 축제 같은 기분이 들어요.

**김범석** 학교 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립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당시 엄청 유명한 가수가 왔어요. 이문동이 마비될 정도였죠. 그런데 집안 같은 편안한 공간에서, 그런 공연을 보는 게 콘서트장에서 보는 것과는 또 다른 재미가 있더라고요. 최인영 학생 말처럼 연예인이 오면 일단 축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최인영** 우리 학교 축제에서 한 가지 아쉬운 건 주점 문화가 없다는 점입니다. 전에는 있었다고 들었는데.

**김범석** 2012년부터 주점 문화를 없앴습니다. 술과 안주를 팔고, 그러면서 많은 돈이 오가고, 엄청난 쓰레기와 소음 등 축제 때면 이런 저런 말들이 많았어요. 술이 오가다보면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금하게 되었죠.

**최인영** 다른 학교 축제에 가면 그 주점 문화가 부러워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학교 입장도 이해가 되네요.

**김민형** 평소에는 공부하는 공간, 수업하는 공간인데 일탈하는 느낌 같은 게 있겠지요. 저는 자율적으로 즐기되 어느 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규제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엇이든 엄격히 금하면 음성적인 활동이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김범석** 저는 이 주제에서 잠깐 빠져야 할 것 같습니다(웃음). 축제 기간에 학생들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좀 엄격한 편이에요. 축제 전 시설팀, 행정지원팀, 총괄팀, 보건팀, 총학생회 등과 함께 4~5차례 회의를 합니다. 축제 당일에는 각 부스의 학생 대표들을 불러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사항을 일러주고 당부를 합니다. 연예인 공연이 있는 날에는 한적한 무대 뒤에 아예 자리를 잡아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요. 가끔 지역 주민들 중에 술을 드시고 들어와 그런 곳에 자리잡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김민형** 학생지원팀에서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저도 단순히 음주 사고보다는 안전이라는 더 큰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미해도 사고가 생기면 축제 전체의 의미가 퇴색되고 지속성에도 타격을 받기 때문에 안전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김범석** 그렇습니다. 많은 인력과 시간을 들여 준비했다 하더라도 사고가 생기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더 긴장하게 되지요.

**김민형** 그런데 저도 축제에 가고 싶어요(웃음). 학생들이 음식을 판다고 하면 한 두 개 사먹는 게 전부인데, 같이 즐길 방법이 없을까요?

**김범석** 제 생각엔, 학생들도 교수님을 기다릴 겁니다. 교수님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다가서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계시고, 서로 그런 생각을 하니 다음 축제 때는 함께 즐기는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인영** 맞아요. 저도 교수님들과 다같이 즐기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김범석** 그렇게 되면 학생들만을 위한 대동제가 아닌, 전 구성원을 아우르는 진정한 의미의 대동제가 될 것 같네요.

**최인영** 저는 지금처럼 우리의 축제가 이문동축제로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이 와서 같이 즐겼으면 좋겠어요. HUFS만의 콘텐츠를 개발해 개성있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고, 글로벌캠퍼스랑 함께 하는 자리도 마련되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잘 할 것이라는 전제조건 하에 주점문화도 부활되기를 바랍니다.

**김민형** 저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학생, 교수, 교직원, 지역 주민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고, 그 준비도 함께 하면서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김범석** 좌담을 마무리하기 전에, 저는 지면을 빌어 우리 학생들 칭찬을 좀 하겠습니다. 축제가 끝나면 쓰레기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학교의 청소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모두 치우는데, 일이 몇 배나 많아지죠. 그런데 총학생회 학생들이 축제가 끝나면 이 분들을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합니다. 저는 이것도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해요. 이런 좋은 문화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대동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재미있고 건전한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언어,

# 빅데이터 그리고 알고리즘

최대우  
통계학과 교수



###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환경마련이 우선

알파고 이후 우리나라는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분석에 의해 통찰을 발굴하는 대상에서 인간의 경험과 지혜가 담겨 알고리즘을 학습하여 인공지능을 완성하는 소중한 자원으로 그 인식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딥러닝을 중심으로 한 알고리즘 역시 연구를 위한 국한된 목적에서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며 국내 기업들은 도입과 활용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너무나 오랜 기간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해 왔으며, 알고리즘 역시 근본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학교육의 부재로 단순 컴퓨터 언어의 코딩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눈에 보이는 사례를 중심으로 변화를 정리하고 규제 중심의 정책 마련에 부산해 보이기도 한다. 즉, 과학에 근거한 근본적 변화는 뒤로 하고 늘 그래왔듯 정부 주도형 제도마련에 무게 중심이 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빅데이터는 각종 규제의 벽에 막혀 있고 활용 경험 부재로 그 가치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간 생태계가 열악하여 빅데이터 관련 전문가인 데이터과학자(data scientist)도 기 존재하고 양성되기 어려운 상태이다. 강력한 수학적 이해력으로 무장된 알고리즘 개발자 역시 저가형 IT개발자로 인식하는 경우가 일부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조바심 보다는 출발은 늦었지만 좀 더 근본적인 것을 이해해가며 건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없애고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는 활성화 법안 등을 만드는 것 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기술적 측면을 이해하며 진정 필요한 환경 조성이 무엇인지 이해하였으면 한다. 교육 현장에서는 초 단거기 커리큘럼에 의한 기 능인 보다는 장기적 안목에서 수리적 기초과학 교육을 통해 근본적 경쟁력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할 것이다.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은 하나의 트렌드라고 하기엔 국가 경쟁력과 더 나아가 생존과 연관되는 중요 아젠다로 속도 보다는 근본적인 것을 다져 나아가야 할 것이다.

크고(Volume), 빠르게(Velocity) 생산되며 다양한(Variety) 형태로 정의되던 빅데이터는 지식과 경험이 고스란히 담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터넷으로 연결된 사람과 사물들, 이를 통해 발생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새로운 서비스로 인간의 편의성은 증대되고 있다. 아니 편의성을 넘어 인간의 영역을 위협하고 있다.

### 알파고의 탄생과정과 본질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에 의해 기계가 인간을 대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작년 알파고의 출현을 통해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알파고의 탄생과정과 그 본질을 살펴보면 빅데이터, 인공지능,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관계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알파고는 너무나 많은 경우의 수로 기계가 인간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 왔던 바둑에서 알고리즘에 의해 인간에게 승리하며, 일정 분야에서 기계가 인간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 사건이다. 알파고의 알고리즘은 규칙형태로 인간이 기계에게 일일이 주입한 기준 방식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기보(棋譜)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여 이기는 방법을 터득하는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에 의해 완성된 것이다. 강화학습의 개념과 관련 연구는 딥러닝(deep learning) 알고리즘과 만나 다양한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계산량은 게임용 PC에 주로 사용하는 그래픽 카드 GPU(Graphic Processing Unit)의 수 많은 계산 코어를 활용하여 극복한 것이다. 여기서 기계를 학습시킨 기보(棋譜) 빅데이터, 강화학습을 현실화한 딥러닝, 그리고 수많은 계산을 현실화한 GPU가 알파고의 3대 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지식출판원

새로 나온 책

01 터키어 첫걸음

터키에 존재하는 문화적 다양성 외에도 한국인들에게는 터키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언어적 측면에서 터키어는 한국어와 어순과 문법 체계가 유사해 두 언어가 알타이어계에 속한다고 분류되고 있으며 이처럼 유사한 언어 체계는 서로에게 유대감을 쉽게 갖게 하는 이유다. 이 책은 터키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을 위해 초보 단계에서부터 중급단계의 회화를 익힐 수 있도록 꾸며졌으며 초보자들이 터키어 문장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게 터키어 문장의 뜻도 함께 적었다. 본문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본문 전체를 터키인들의 음성으로 녹음하였다.  
김대성 / 2017 / 368면 / 46배판 / 24,000원

04 베트남어 첫걸음

이 교재는 문화소통의 문제가 대두되는 현 시점에서 베트남 실용회화에 한국과 베트남의 언어 문화를 실용회화에 접목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베트남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 혹은 기업체 임직원들에게 첫걸음 교재의 내용을 학습하면서 동시에 현지 베트남인과 같은 자연스러운 구어체 회화가 가능하도록 꾸며졌다. 한국과 베트남 언어문화의 비교적 시각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목차를 구성하고 한국과 베트남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표현 내용을 책에 담았다.  
전해경, 이현정 / 2017 / 368면 / 46배판 / 24,000원

08 힌디어 중급 문법

이 책은 문법의 상세한 설명과 실용적인 예문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다양한 규칙과 표현법의 예문은 실제 매체에서 사용되고 상황 별 응용하기에 유용한 문장들로 담았으며 힌디어 학습자들이 자율 학습을 통해 힌디어 구문과 어법을 익힐 수 있도록 연습문제를 마련하였으며 난이도를 고려한 문법, 어휘 내용들을 점진적으로 중첩시켜 상호 연상되도록 구성하였다. 힌디어중급문법은 힌디어 학습자가 꼭 알아야 할 후치사, 접속사, 부정사, 수동태 등 필수 문법 총 13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종찬, 김용정 / 2017 / 384면 / 46배판 / 18,000원

02 아랍어 첫걸음

언어 분류 상 셈어족에 속하는 아랍어는 서아시아 및 북부 아프리카에 위치한 22개 아랍국가에서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사용되는 언어이다. 최근 한국과 아랍 세계 간의 다방면 교류 증가로 인해 아랍어와 아랍문화에 대한 국내 학습자들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학습 자료의 필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본 저서는 아랍어에 처음 입문하는 초보자들이 보다 쉽게 아랍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아랍어의 자음과 모음, 주요 발음 부호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더불어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 별 필수 어휘와 주요 표현의 학습에 중점을 두었다.  
윤은경 / 2017 / 264면 / 46배판 / 22,000원

05 힌디어 첫걸음

이 교재의 가장 큰 특징은 주요 문형을 상황별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16과로 구성된 이 교재의 각과는 두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학습목표'에 따라 문형중심의 '대화문(본문)'과 '어휘', '문법'을 공부하며, 두 번째 단계는 주요 문장 10개를 선별하여 '듣기', '쓰기', '연습'에서 그 문형을 반복적으로 듣고, 쓰고, 문장 전환을 연습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하였다. '회화 테스트'에서는 앞에서 익힌 문형을 말하여 봄으로써 구사력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단원평가'에서 각 과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파악하도록 하였다.  
김우조, 이동원 / 2017 / 456면 / 46배판 / 27,000원

03 몽골어 첫걸음

이 책은 초급단계의 학습자들을 배려하여 몽골어 문장의 기본 구조에서부터 다양한 문형 분석에 이르기까지 학습자의 요구 수준을 충족시키며 광범위한 부문에서 양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료하게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었다. 총 20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교재는 몽골어를 처음 접하는 학습자들에게 몽골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매 단원마다 관련 문법 내용을 요약하며 제시하였으며 기본적인 몽골어 지식습득과 학습한 내용들을 학습자 스스로가 복습할 수 있도록 듣기, 문제풀기 및 실용적인 문형을 담았다.  
김기선·Ulziibat, Dorj / 2017 / 312면 / 46배판 / 24,000원

06 호텔리어 중국어

이 책은 호텔리어가 중국어권 고객을 응대하면서 알아야 할 필수 중국어 핵심 문형을 실무 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내용으로 기획되었다. 비행기 티켓 예매, 손님 안내, 환전 등 총 13개의 주제로 구성하였으며 각 과마다 상황별 대화문을 제공하여 다양한 표현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문 해석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문법을 제시 하였으며 학습을 통해 본문에 대한 학습 정도를 체크해볼 수 있도록 연습문제를 제공, '표현 plus' 내용을 통해 상황별 중국어 문형을 추가로 학습해볼 수 있다.  
원종민, 장린자, 서준 / 2017 / 264면 / 46배판 / 16,000원

07 생활 중국어

이 책은 초·중급 수준의 중국어 학습자들이 중국 현지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중국어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중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인사, 감정, 직장생활, 대중교통 총 13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국 현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상황별 주제에 적합한 중국어 어휘, 표현을 제시하였으며 학습자들은 이 내용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중국인과의 간단한 대화는 물론 중국 현지를 방문하였을 때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원종민, 자오문신, 서준 / 2017 / 288면 / 46배판 / 17,000원

09 EU 사법 3

이 책은 유럽공동매매법(CESL)에 대한 연구 성과를 담고 있다. 2016년 현재, 이 책에 실린 연구 성과들이 취합된 유럽공동매매법에 관한 규칙(regulation)을 위한 집행위원회의 제안은 결국적으로 '디지털콘텐츠공급을 위한 계약'과 '온라인과 원격 물품매매'를 위한 지침(directive)이라는 두 개의 제안으로 대체되었다. 그런데도 이 두 개의 지침은 유럽공동매매법에 대한 경험과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현시점에서도 여전히 유럽공동매매법에 대한 논의는 유효하다. 집행 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 작업계획(2015 Work Programme)에 따르면 이 두 개의 지침에 대한 제안은 유럽공동매매법 규칙을 위한 협상 과정의 경험에 기초하고 있다.  
편집대표 박영복 / 2017 / 584면 / 크라운판 / 30,000원

10 FLEX 영어 어휘

FLEX 영어 수험준비는 FLEX센터에서 여러 차례 걸쳐 발간한 기출문제 설명 형식의 해설서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해설서를 통해 시험의 전반적 구성체제와 문제 유형, 출제경향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지만, 체계적인 수험준비를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에 수험생들의 수험준비를 체계적으로 돕기 위한 첫 단계로서 본 FLEX 영어 어휘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본 어휘서는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FLEX 영어 읽기, 듣기 시험에 출현한 중요 빈출 어휘를 선별하여 56일(8주) 동안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홍성훈·이주은·오영림·William Hart / 2017 / 968면 / 국판 / 20,000원

11 유학을 꿈꾸다

자유를 공기를 찾아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때, 취직을 거부한 졸업생들은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더 하거나 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사회의식이 높았던 학생, 경제 상황이 어려웠던 학생들은 미국행보다는 독일행을 택했고 이런 이유로 저자 또한 독일행에 오른다. 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역동적인 시대를 살고 있는 지식인으로서의 소명을 자각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소득이었다. 미지의 세계로 떠날 때 우리는 종종 과장된 두려움을 지고 간다. 독일 사회에 대한 무지의 소리로 저질렀던 실수와 지나친 자의식에서 비롯한 과잉 반응은 실소를 자아내게 하면서도 또 다른 이의 유학을 꿈꾸게 한다.  
이은영 / 2017 / 320면 / 신국판 / 15,000원

12 국제회의 통역사의 비밀노트

이 책의 역할은 사전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부분을 설명하여 한층 더 심화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이 자주 틀리는 영어 발음, 관사와 전치사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단어들, 같은 단어라도 강세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단어들을 모아보았다. 또한, 이 책에서는 사자성어와 속담을 영어로 표현하는 방법과 회화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 등까지 표괄하고 있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외우는 것보다 항상 곁에 두면서 '영어 참고서'와 같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 보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혹은 시간 날 때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보는 것도 추천한다.  
임향욱 / 2017 / 368면 / 크라운판 / 18,000원



06

07

08



09

10

11

12



# HUFS News

- 34 HUFS Topic
- 38 HUFS Today
- 44 HUFS 학술 소식
- 46 HUFS 교수 소식
- 47 사이버한국외대 소식
- 48 HUFS 사업지원처 소식

- 51 동문 소식
- 52 주요동문 인사
- 53 발전기금 소식
- 54 발전기금 약정자 명단

## 9년 연속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HUFS가 9년 연속으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정부로부터 10억 8천 5백만 원의 지원을 받는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함께 지난 4월, 59개 대학을 대상으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중간평가를 실시했다. 중간평가에서는 대입 운영 내실화, 대입 공정성·투명성 확보 노력, 고른기회전형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최근 9년 동안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된 HUFS는 전형별 모집비율, 전형요소 반영비율 등의 정량적 평가와 함께 종합·정성적인 평가를 통해 학교교육 중심의 전형 운영, 고른기회 전형 운영, 전형 운영 여건 등의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



## 아니발 안토니우 카바코 실바, 포르투갈 대통령 HUFS 방문

아니발 안토니우 카바코 실바(Anibal Antonio Cavaco Silva) 前 포르투갈 대통령이 6월 2일(금) 서울캠퍼스를 방문하여 특강을 진행했다. 아니발 안토니우 카바코 실바 前 대통령은 1980년 포르투갈의 재무부장관과 1985년 포르투갈 총리 자리를 거쳐 2006년부터 2016년까지 포르투갈 제 19대 대통령을 역임하였다. HUFS에서는 김인철 총장을 비롯한 교무위원들이 카바코 실바 대통령을 환대하였으며, 카바코 실바 전 대통령은 포르투갈어과 학생들에게 '세계 속의 포르투갈, 포르투갈어'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한편 HUFS는 리스본종합대학교, 리스본기술대학교 등 3개의 대학교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매년 10여 명의 학생들이 포르투갈에서 공부하고 있다.





## ‘제36회 외대 모의월드컵’ 결승전 및 ‘2017학년도 농구대잔치’ 개최

4월 6일(목), 서울캠퍼스 운동장에서 국제통상학과(무역풍)와 영어대학(HESA)의 모의월드컵 결승전이 열렸다. 3월 27일(월)부터 4월 6일(목)까지 11일 동안 서울캠퍼스 31개 학과가 참가하여 토너먼트 형식으로 치러진 이번 대회 of 최종 우승팀의 영예는 연장전 접전 끝에 영어대학(스코어 4:3)에게 돌아갔다. 한편 5월 8일(월)부터 5월 19(금)까지는 서울캠퍼스 오바마홀에서 교내 중앙동아리 농구부 HUFS(주장 김무중) 주최로 ‘2017 외대 농구대잔치’가 열렸다. 농구대잔치 사상 최초로 실내 오바마홀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서울캠퍼스 단과대학 및 학부 농구 소모임 등 총 20개 팀의 교내 구성원들이 참가했다.

## 진로취업지원센터, ‘2017 재직 동문 멘토링 DAY’ 행사 개최

취업으로 걱정이 많은 대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난 5월 26일(금) 서울캠퍼스 오바마홀에서 ‘2017 재직 동문 멘토링 DAY’ 행사가 개최되었다.

HUFS 진로취업지원센터에서 주관한 ‘동문 멘토링’ 행사는 취업에 성공한 선배들의 생생한 정보를 듣기 위해서 매년 많은 재학생들이 참가하는 연례 행사다.

올해도 총 800여 명의 재학생들이 상담을 받았으며, 컨설팅을 진행한 한 학생은 “취업박람회나 다른 취업카페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리였다”며 “현장에 계신 선배님들의 생생한 정보와 맞춤형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하였다. 행사 중에는 김인철 총장이 참석하여 학생들과 기업 담당자를 격려했다.

실제 컨설팅을 진행한 기업 담당자 역시 “학생들과 상담을 진행하며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하였으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고 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취업타로점 보기, 취업용 증명사진 촬영, 취업 컨설팅 등 다양한 이벤트를 함께 진행하였다.





2016학년도 동계 봉사활동 진행

서울캠퍼스 2016학년도 동계 'HUFS글로벌봉사단'이 2월 3일(금)부터 2월 11일(토)까지 베트남 광남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베트남 광남의 Phan Boi 초등학교로 파견된 16명의 봉사단원들은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봉사 활동을 진행하였다. HUFS는 학생들의 봉사정신 함양 및 글로벌네트워크 형성,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해 매년 세계 각지로 'HUFS글로벌봉사단'을 파견하고 있다.



외대사랑순찰대 발대식 개최

3월 13일(월) 서울캠퍼스 교수회관 강연실에서 교내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외대사랑순찰대' 발대식을 개최했다. 선발된 24명의 '외대사랑순찰대'는 3명이 1개조를 구성해 총 8개조가 하루 4시간(19:00~23:00)씩 야간 취약 시간대를 중심으로 순찰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학교축제 등 특별상황 발생 시에는 심야에도 운영할 계획이다.



중어중문과 쉬젠 학생, '중국국가우수자비유학생장학금' 장학금 선정

중어중문과 박사생인 쉬젠(徐榛, XU ZHEN) 학생이 4월 5일(수) 명동중국대사관에서 열린 '2016 중국국가우수자비유학생 장학금 수여식'에서 장학금을 수상하였다. 본 장학금은 전세계의 중국인 자비유학생 가운데 500명에게 수여되는 것으로 한국에서는 12명이 최종 선발되었다. 쉬젠 박사생은 유학을 통해 중국에서 우수한 학술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인정되어 장학금을 지원받게 되었다.



외국인 사생을 위한 문화체험 실시

2017학년도 1학기부터 HUFS Dorm에 입사한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한국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3월 25일(토)에 실시된 첫 번째 프로그램은 수원화성 프로그램으로 총 40명의 외국인 학생이 참여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2회차의 목적지는 서평택 2항대로 한국의 분단현실에 대한 외국인 학생들의 높은 공감증을 바탕으로 선정되었으며, 3회차의 목적지인 철원은 DMZ 조방을 위해 선정되었다.



HUFS Dorm 인터네셔널데이 실시

2017학년도 1학기 외국인 학생들이 직접 자기 나라와 문화를 소개하는 인터네셔널데이가 HUFS Dorm 1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1회 차 국가는 불가리아로 이번 학기 교환학생인 막심 티로브 학생이 직접 불가리아의 언어, 음식, 춤, 노래, 문화 등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러 사생들이 참여하여 불가리아에 대해 배우고 또 문화를 매개체로 소통하며 건설적인 시간을 함께 가질 수 있었다.



한국어문화교육원, 2017년 문화엑스포 개최

한국어문화교육원은 5월 2일(화) 서울캠퍼스 운동장에서 '한국어문화교육원 2017년 문화엑스포'를 개최했다. 베트남, 일본, 중국 등 25개국의 학생들이 각 나라별로 설치된 부스에서 자국의 음식, 의상, 노래 등을 소개하고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는 축제의 장을 열었다. 행사는 오전 10시 개회사를 시작으로 부스 탐방, 공연, 시상 및 퍼레이드 순으로 이어졌다.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한국 문화체험 행사 개최

3월 22일(수) 본관 앞 나무계단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한국 문화체험 행사인 '한국 왓섭(Korea Wussup)'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HUFS 국제학생지원팀과 국제학생회(ISO)에서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 학생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한국 음식, 의류, 놀이 등의 한국 고유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글로벌캠퍼스 진로취업지원센터, 학생 설문조사

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취업지원 진행  
글로벌캠퍼스 학생·인재개발처 진로취업지원센터는 3월 29일(수)~3월 31(금)까지 '진로취업지원센터 참여 희망 프로그램'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HUFS 대학창조일자리본부 진로취업지원센터는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파악하여 향후 수요자 맞춤형 진로·취업 프로그램을 개설할 예정이다.



2017 글로벌캠퍼스 학생상담센터-성문화상담실, 신입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실시

글로벌캠퍼스 학생상담센터-성문화상담실에서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4월 5일(수)부터 4월 27일(목)까지 총 7회에 걸쳐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성폭력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성감수성을 키우고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의식을 자각할 수 있는 성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성정체감, 성의식 발달, 건강한 연애 관계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제7회 전국 대학(원)생 러시아어 토론타 대회 개최

5월 19일(금) 러시아연구소(소장 강덕수)는 서울캠퍼스 미네르바컴플렉스 국제회의실에서 '제7회 전국 대학(원)생 러시아어 토론타 대회'를 개최했다. 러시아연구소는 러시아어에 관한 전국 대학(원)생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재능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고자 2011년부터 매년 본 토론타 대회를 개최해왔다. 국내 15개 기관 34명의 학생이 예선에 참가했으며, 결승 결과 성균관대학교 이호진 학생이 대상, HUFS 정인재 학생이 금상을 수상했다.



진로취업센터, 광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 초청 특강 개최

4월 24일(월), 서울캠퍼스에서 진로취업지원센터 주관으로 'CEO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강연자로 초대된 광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공공기관이 원하는 인재상'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으며, 이날 특강에는 취업준비생과 예금보험공사 입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포함한 재학생 1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광범국 사장은 학생들의 진로설정과 미래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2018학년도 수시모집 대비

모의논술 및 지원전략설명회 실시

HUFS는 5월 20일(토) 2018학년도 수시모집 대비 모의논술을 실시하였다. 2018학년도 모의논술은 총 2,000명의 수험생이 신청하였으며, 서울캠퍼스에서 전형이 치러졌다. 모의논술 이후에는 오바마 홀에서 HUFS 수시모집 지원전략설명회와 모의논술 출제위원장이 직접 들려주는 논술특강을 진행하였다. HUFS 모의논술은 수시모집 논술전형 논술고사의 출제 방향성과 동일하게 PartI과 PartII에서 총 4개의 문항이 출제된다.



HUFS Dorm 세계문화 및 인문학 강좌 실시

HUFS Dorm 사생과 용인시민을 위한 세계문화 및 인문학 강좌 1회 차가 4월 27일(목) HUFS Dorm 1 세미나실에서 진행되었다. 첫 번째 강좌의 주제는 '루마니아를 찾아서'로 불가리아어과의 박정오 교수가 주관했다.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실시되는 문화강좌는 이번 학기 총 6회 실시될 예정이며 세계문화에 대한 강좌뿐만 아니라 세금상식이나 법률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와 분야를 아울러 진행될 예정이다.



지식출판원, '2016 휴인 어워드' 개최

4월 19일(수), HUFS 총장실에서 '1st HUINE Bestseller Award' 및 '1st HUINE Honorary Award'를 개최했다. 휴인(HUINE)은 HUFS 지식출판원의 서브 브랜드로 『두 개의 스페인 알타미라에서 펠리 빼 6세까지』(저자 신정환, 전용갑), 『사바틴에서 푸 시킨까지』(저자 김현택, 라승도, 이지연), 『수사학』(저자 이종오) 총 3권의 도서가 선정되었다.

지식출판원, 저작권 특강 개최

4월 28일(금), 서울캠퍼스 교수회관 강연실에서 '논문, 출판 발행 시 알아야 할 저작권'에 대한 특강이 열렸다.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사업의 일환인 이번 저작권 특강은 지식출판원의 주관으로 이뤄졌으며 1부는 채다은(변호사법률사무소 차이), 2부는 조희우 변리사(법무법인 울촌)의 초청 강의로 진행되었다.

경제학부, 조경규 환경부 장관 초청 특강 개최

경제학과 80학번 동문인 조경규 환경부 장관이 4월 25일(화) 서울캠퍼스 대학원 브릭스홀에서 환경 이슈와 환경정책에 대해 특강을 진행하였다. 교수 및 경제학부 재학생 등 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조경규 장관은 우리의 생활 속 24시간 동안 관련되어 있는 환경에 대한 이슈와 정책에 대해 강의를 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생활 속에 환경과 환경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학과 초청 특강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학과(홍완석 주임교수)는 통번역대학원 한노과와 공동으로 러시아어 연구소 HK 연구사업단이 후원하는 러시아-CIS 지역전문가 초청 금요특강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특강인 3월 17일(금)에는 임수석 외교부 유럽국장이, 두 번째인 3월 31일(금)에는 진창수 세종연구소장이, 5월 12일(금)에는 주카자흐스탄 대사, 주러 대사관 정무공사, 주휴스턴 총영사를 역임한 백주현 외교부 본부대사가 맡았다.



국제지역대학원 GRN연구팀, 브뤼셀-서울 안보 포럼 및 HUFS-조지타운대학교 서울-워싱턴 안보전략대회 개최

국제지역대학원 GRN연구팀은 5월 8일(월)~9일(화) 양일간 브뤼셀에서 브뤼셀자유대학교 유럽대학원(IES-VUB) 및 벨기에 에그몽 왕립국제연구원과 공동으로 브뤼셀-서울 안보포럼(BSSF)을 개최하고, 5월 11일(목)에는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외교대학원 안보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서울-워싱턴 안보전략대회를 개최했다.



국제스포츠레저학과,

제1회 한국외대 생활체육 수영대회 개최

5월 3일(수) 국제스포츠레저학과 학생들이 주최하는 제1회 한국외대 생활체육 수영대회가 노원구민체육센터에서 열렸다. 국제스포츠레저학과에서는 스포츠 이벤트 기획 및 실습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매년 5개 이상의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학생들은 스포츠 종목 선정을 비롯한 전반적인 기획, 스포스 기획 및 대회 오퍼레이션을 자체 운영하게 된다.



글로벌 미네르바교양대학, 경기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경기 꿈의 대학 강좌' 운영

글로벌캠퍼스 미네르바교양대학(학장: 라영균 독일어통번역과 교수)은 4월 13일(목)부터 6월 29일(목)까지 경기도교육청 소속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경기 꿈의 대학 강좌'를 운영한다. '경기 꿈의 대학 강좌' 프로그램은 경기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은 경인지역 소재 70여 개 대학에서 경기도교육청 소속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융합적 사고력과 진로개척 역량의 신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태국어과 송고란 전통축제 개최

태국어과에서 지난 4월 7일(금) 태국식 전통 설 명절인 송고란 축제를 개최하였다. 태국어과에서는 매년 개최해 온 송고란 행사를 태국어를 전공하는 재학생들뿐 아니라 타 전공 학생 및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리고 함께 즐기며 축제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취지로 올해 잔디광장에서 개최하였으며 백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축제를 즐겼다.



아랍어과, '카타르 2017 세계 대학생 아랍어 토론대회' 참가 및 주한 알제리대사 특강 실시

아랍어과(학과장 윤은경)는 4월 8일(토)~12일(수)까지 카타르에서 개최된 '2017 세계 대학생 아랍어 토론대회'에 한국대표로 참가하였다. 아랍어과 주찬균, 이학수, 이진국, 전유진 학생으로 구성된 HUFS팀은 우수한 실력으로 2등을 달성했다. 한편 5월 16일(화) 한-아 소사이어티와 공동으로 주한 알제리 대사 H.E. Mohamed El Amine Derragui를 초청하여 특강을 실시하였다.



이탈리아어과 특강시리즈 개최

이탈리아어과(학과장 김시홍)는 신입생과 학과생을 대상으로 2017년도 1학기 특강시리즈를 이어가고 있다. 3월 22일(수)에는 비정상회담에 출연 중인 이탈리아인 알베로토 몬디를 초청하여 '이탈리아, 이탈리아인 그리고 한국과 이탈리아 관계'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학생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3월 29일(수)에는 이탈리아어과 박관수 총동문회장을 초청해 신입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신임 EU대사 방문 및 학생과의 대화 행사 진행

4월 14일(금) 서울캠퍼스 국제관 2층 세미나실에서 미하엘 라이터러 신임 EU 대사와 국제지역대학원 EU학과 및 학부 EU융합연계전공생들과의 만남이 진행되었다. HUFS 장모네 EU센터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라이터러 대사는 '유럽연합 60년: 앞으로의 전망(Six Decades of the EU-the Next Years)'을 주제로 짧은 강연을 하였다.

제7, 8차 노어과 취업특강

2016학년도 1학기에 시작된 노어과 취업특강은 1학기 3회 강좌를 목표로 하고 있다. 4월 12일(수) 실시되었던 제7차 노어과 취업특강에서는 이상민(노어 95, KOTRA 근무) 동문이, 5월 10일(수) 제8차 노어과 취업특강에는 김재환(노어 99, 경찰청 외사국 근무) 동문이 강사로 초청돼 강의를 진행하였다.



개교 63주년 기념식 개최

4월 19일(수) 서울캠퍼스 애경홀에서 '개교 63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63주년 기념식에는 학교관계자 및 주요 내빈이 참석하여 장기근속자 및 우수 교직원에 대한 표창, 학교법인 동원육영회의 동원교육상 시상, HUFS AWARDS 시상 등을 진행하였다. 또한 이번 개교기념일 행사에서는 모교를 졸업한 동문을 멘토로 지정하는 HUFS와 총동문회 간의 '멘토링 협약'을 체결하였다.



알리 알사이드 쿠웨이트 외교부 차관보 특강 개최

HUFS는 3월 21일(목) 알리 알사이드 쿠웨이트 외교부 차관보를 초청하여 'Kuwait Foreign Policy'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하였다. 서울캠퍼스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특강은 쿠웨이트의 외국인 정책에 대하여 알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특강에 앞서 김인철 총장은 알리 알사이드 차관보와 접견을 통해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강민구 법원도서관장 초청 특강 개최

3월 31일(금) 서울캠퍼스 법학관에서 강민구 법원도서관장을 초청하여 '혁신의 길목에 선 우리의 자세'에 대한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에는 교직원 및 학생 2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강민구 법원도서관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학생들에게 미래 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IT 감수성'의 역할과 익숙함에 집착하다가 뒤처지지 않기 위한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송창운 아리랑TV 미디어 대표이사 방문

5월 12일(금) 송창운 아리랑TV 미디어 대표이사가 HUFS를 방문하였다. 송창운 대표는 경영학과 81학번(ROTC 23기)으로 김인철 총장, 이은구 대외협력처장과의 접견자리에서 HUFS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움을 표시하며 학교 발전에 더욱 힘써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리랑TV는 한국의 국가 브랜드 및 우수한 콘텐츠를 세계에 알리는 글로벌 전문 프로덕션이다.



명예퇴직 직원 공로패 수여식 개최

3월 22일(수) 서울캠퍼스 총장실에서 퇴직 교직원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이 열렸다. 이번에 퇴직하는 직원은 학술정보팀 차충상 부장대우, 김광순 과장으로, 재직기간 동안 학교를 위한 공로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김인철 총장은 "재직기간 동안 학교를 위한 직원 선생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2017년 수사나 로드(Susanna Roth) 세계 체코문학 번역대회 한국어 부문 시상식 개최

2017년 수사나 로드(Susanna Roth) 세계 체코문학 번역대회 한국어 부문 시상식이 5월 25일(목) 글로벌캠퍼스에서 열렸다. 본 대회는 체코 문화원 프라하 본부와 프라하 아트·씨어터 인스티튜트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되었으며, 한국에서는 두 번째 개최를 맞이하였다. 한국어 부문의 우승자로는 HUFS 체코·슬로바키아어과 박경미 학생이 선정되었다.



동대문구와 어학멘토링 시스템 구축 협약 체결

HUFS와 동대문구가 3월 20일(월), 서울캠퍼스 이덕선 회의실에서 어학멘토링 시스템 구축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외국인전용기숙사인 HUFS 글로벌홀의 건립 후,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초·중등 학생들과 HUFS에 재학 중인 외국인 대학생 간의 어학 멘토링 프로그램 구축에 상호 협력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인철 총장, 델라웨어대학 방문

김인철 총장이 5월 1일(월) 미국 델라웨어대학 Dennis Assanis 총장의 공식 초청으로 자매대학인 델라웨어대학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복수학위 제도 교류협정을 갱신하고 공학, 사회과학 및 국제관계 부문에서 대학 간 교원 교환에 관한 협정을 맺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5월 2일(화)에는 델라웨어대학교 국제학부에서 지속적인 교류를 위하여 델라웨어대의 한국국적 교원 및 한인 커뮤니티를 초청하여 면담 시간을 가졌다.



대만 민주진보당 입법위원 방문

5월 8일(월) HUFS에 대만 민주진보당 입법위원(국회의원)이 방문하였다. 천원밍(陳明文, CHEN, MING-WEN) 단장을 포함한 19명의 인사가 한국 대통령선거 관찰단으로 한국을 방문하였으며, 일정 중 HUFS와의 교류를 위하여 대만연구센터의 주관으로 캠퍼스투어, 오찬 등의 일정을 진행하였다. 학교 측에서는 김인철 총장을 비롯하여 김현택 대외부총장 등이 참석하였다.



HUFS 4.19 학생 민주혁명 57주년 기념식 개최

4월 18일(화), 서울캠퍼스 교수회관 2층 강연실에서 HUFS 4.19 학생 민주혁명 57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4.19 학생 민주혁명 57주년을 맞이하여, 4.19혁명의 의미를 되새기고 학생 영령들을 기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4.19 민주혁명 장학생에 대한 장학증서 수여식도 진행되었으며, 기념식 후에는 미네르바동산에 있는 4.19 기념비를 순례하며 그 정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가졌다.



로마조약 60주년 기념 전시회 'EVER CLOSER UNION' 개최

HUFS는 주한이탈리아 대사관, 이탈리아 문화원 및 주한 EU대표부와 공동으로 로마조약 60주년 기념 'EVER CLOSER UNION' 개막식 및 전시회를 3월 23일(목) 서울캠퍼스 미네르바콤플렉스 국제회의실 및 오바마홀 라운지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유럽의 5명의 대사를 비롯하여, 회원국 다수의 부대사 및 외교관들이 내교하였고 HUFS 교수진 및 학생들 100여 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원로·명예교수 초청 간담회 개최

4월 18일(화) '원로·명예교수 초청 간담회'가 서울캠퍼스 본관 스카이라운지에서 개최되었다. 50여 명의 원로교수들과 학교 교무위원들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김인철 총장은 최근 학교의 발전사항을 보고하였으며, 원로교수들은 학교 발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오랜만에 학교를 방문한 원로교수들은 학교의 발전상을 보여 자랑스러워하며, 더욱 학교를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언어연구소, 문서지기 주식회사와 상호협력 협정 체결**

3월 22일(수) 언어연구소(소장 김백기, 독일어통번역학과 교수)는 문서지기 주식회사와 양 기관의 발전과 사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호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문서지기 주식회사는 발전기금을 기탁하며 양 기관 협력을 통해 개발 또는 개발 예정인 콘텐츠에 대한 검증 및 자문 등의 인적·지적 협력을 하기로 하였다.



**언어연구소, 제15회 한국언어학올림피아드 시상식 개최**

언어연구소(소장 김백기, 독일어통번역학과 교수)는 3월 25일(토) 서울캠퍼스에서 제15회 한국언어학올림피아드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언어학 올림피아드 한국대표 선발은 지난 2월 18일(토) HUFS 언어연구소가 주관하고 HK세미오시스연구소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국내 유일한 언어학 관련 올림피아드로 전국 고등학교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이루어졌다.



**언어연구소, 2017년 제2·3·4차 기획특강 개최**

언어연구소(소장 김백기, 독일어통번역학과 교수)는 HK세미오시스사업단과 공동으로 3월 29일(수) 교수회관 강연실에서 '아프리카어 연구와 유형론: 스와힐리, 하우스, 줄루어 및 기타 사례들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두 번째 기획 특강 시간을 가졌다. 4월 26일(수)에는 '문법적 증거성과 어휘적 증거성'을 주제로, 5월 31일(수)에는 '문법화와 의미변화: 주관화와 상호주관화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의 개최하였다.



**한·중남미녹색융합센터, 제32회 국내초청 세미나 개최**

한·중남미녹색융합센터(센터장 정경원, 스페인어과 교수)는 6월 1일(목)에 허태완 외교부 중남미국장을 초청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 대 중남미 협력 외교'라는 주제로 국내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허태완 국장은 특강을 통해 중남미 대륙의 중요성(세계경제의 블루오션)을 설명하면서 이 지역으로의 시장진출(무역과 투자), 상생협력(국제협력) 그리고 다자외교(특히 FTA)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7년 HK세미오시스연구소, 국내학술대회 개최**

HK세미오시스연구소(센터장 김백기, 독일어통번역학과 교수)는 4월 14일(금), 서울캠퍼스 교수회관 강연실에서 '미디어 세미오시스: 매체로서의 기호'라는 주제로 국내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세미오시스연구소는 '세계·언어·삶의 세미오시스(Semiosis)'라는 아젠다로 인문한국(HK)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있다.



**대만연구소, 제8회 국제학술회의 개최**

대만연구소(센터장 임대근, 중국어통번역학과 교수)는 5월 13일(토) 서울캠퍼스 법학관 회의실에서 중국지역학회(회장 박복선 경성대 교수), 한림대 대만연구소(소장 김태호 한림대 교수), 건국대 대만교육센터(센터장 한인희 건국대 교수)와 함께 제8회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제질서의 변화와 동아시아의 미래'를 주제로 향후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는 물론 재경제를 아우르는 관계를 논의하는 장으로서 자리매김했다.



**러시아연구소,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 한국대표부 개소**

러시아연구소(소장 강덕수, 노어과 교수)는 5월 23일(화) 서울캠퍼스 이덕선 회의실(본관 203호), 러시아연구소 서울사무소(본관 908호)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 한국대표부 개소식 및 현판식을 거행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는 국제 협력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4개 국가에 대표부 개설을 결정하였고, HUFS가 한국 대표부 유치 대학으로 선정되었다.



**러시아연구소, 러시아혁명 100주년 영화제 개최**

2월 28일(화)부터 3월 12일(일)까지 러시아연구소(소장 강덕수, 노어과 교수)가 시네마테크, 서울아트시네마와 함께 '러시아 혁명 100주년 특별전'을 진행했다. 영화제에서는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의 '전함 포템킨'과 '10월' 등 러시아의 고전 걸작들과 '혁명의 천사들'과 같은 동시대 영화까지 모두 12편의 작품이 상영됐다.



**세계문화예술경영연구소, '씨네토크콘서트' 개최**

3월 30일(목) CORE사업단 세계문화예술경영 연구소(소장 장은수, 독일어과 교수)는 융합전공 신설을 기념해서 '씨네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콘서트는 한국의 영화팬들에게 사랑 받은 영화를 중심으로 작품의 의미를 되새기고, 영상과 함께 아름다운 사운드 트랙을 팝페라 가수의 라이브로 직접 들어보는 생동감 있는 문화예술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GTEP 사업단, 필리핀 마닐라 박람회에서 무역 전문가 활동**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GTEP; Global Trading Experts Incubating Program)이 5월 19일(금) ~21(일)까지 필리핀 마닐라 World trade center 전시장에서 열린 필리핀 최대 식품 박람회인 '2017 IFEX 필리핀'에 참가하였다. GTEP은 갖바위식품, VITAFOODS, BIONFNB, 애플리즈와 MOU를 체결하여 김재형(국제경영학과), 유선중(중국어통번역학과), 박정원(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외 10명의 요원을 파견하여 제품 수출을 위해 바이어 상담, 통역, 홍보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로컬리티 사업단, 해외탐사 프로그램 3기 '로컬리티 챌린지' 성공적으로 종료**

로컬리티 기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사업단(단장 김응운, 프랑스학과 교수)은 지난 1~2월 겨울방학 동안 해외탐사 프로그램 '로컬리티 챌린지(Locality Challenge)'의 현지 탐사와 탐사보고 일정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로컬리티 챌린지는 사업단 6개 참여학과(프랑스학과, 러시아학과, 중앙아시아학과, 브라질학과, 인도학과, 한국학과) 12인의 교수진, 글로벌캠퍼스 학생 및 연구산학협력단의 공조로 진행되는 사업단의 대표적인 국제화 교육 프로그램이다.



**CK 로컬리티 사업단-프랑스학과 공동주관 프랑코포니 특강 개최**

CK로컬리티사업단(단장 김응운, 프랑스학과 교수)과 국제지역대학 프랑스학과는 [Fête de la Francophonie 2017](주한 프랑스 대사관 후원)의 일환으로 3월 28일(화) 글로벌캠퍼스 공학관에서 'Les Jeux Olympiques: De Chamonix à PyeongChang'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하였다. 학생들은 1924년 프랑스 샤모니 동계올림픽의 역사와 의의 등을 되짚어보고 올림픽 정신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코어사업단, 주한 스위스 대사 초청 특강 개최**

코어사업단(사업단장 윤석만, 프랑스어학부 교수)에서는 EU지역연구소(소장 김철민 교수), EU센터(소장 김시홍), 그리고 프랑스어학부(학부장 이창훈 교수)와 공동으로 3월 30일(목) 서울캠퍼스 교수회관 강연실에서 '다언어 다문화 국가 스위스-EU 내에서의 위상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코어 특강을 개최하였다.



**박정오 교수, '루마니아 슈테판 그리고그리고레 국가 부활 및 통합재단' 최고학위 수여**  
 2016년 11월 18일, '루마니아 슈테판 그리고그리고레 국가 부활 및 통합재단(Fundația Renașterea și Unitatea Națională Ștefan și Grigore)'의 슈테판 켈랴리우(Ștefan Chelariu) 회장은 그간 박정오 교수(루마니아어과)가 이룩한 공적을 기려 재단 '최고학위(Diplomă de Excelență)'를 수여하였다. 학위수여식은 2017년 3월 2일, 글로벌캠퍼스 어문학관 206호실에서 실시되었고, 재한 루마니아 미하이 치옴펙(Mihai Ciompec) 대사가 직접 참석하여 학위를 수여하였다.



**김진아 교수, 중국 텐진시 '천인계획' 연구 전문가 선정**  
 김진아 교수(통번역대학원)가 중국 텐진시에서 진행되는 '천인계획(千人计划)' 연구 전문가로 선정되었다. 천인계획은 중국이 2008년 해외 인재를 중국으로 영입하고자 실시한 '외국인 전문가 영입 프로젝트'로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인재를 영입하여 중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김진아 교수는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한국인 최초로 천인계획 전문가로 초빙되어 창조인재에 관한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우조 교수, 해외 학술행사서 특별연설**  
 김우조 교수(인도어과)가 3월 18일(토)부터 19일(일)까지 인도 비간 바반 프레젠테이션에서 열린 '박티 운동(Bhakti movements)과 구루 잠보지의 사상을 통해 본 현 세계 환경 문제'를 주제로 한 국제학술행사에 초청받아 특별연설을 하였다. 김우조 교수는 십 수년간 박티운동을 연구해 온 전문가로서 박티 사상을 통한 환경의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참석자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었다.



**임경순 교수, 김유정학회 학술대회 제2대 학회장 선출**  
 임경순 교수(교육대학원)가 4월 15일(토) 강원대학교에서 열린 제7회 김유정학회 학술대회에서 제2대 학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김유정학회는 2011년에 창립된 이래 유인순 교수(강원대)가 학회장을 맡아 오면서, 한국 근대 문학사에 큰 자취를 남긴 작가 김유정의 문학을 연구하고 확산시키는 데에 기여해 왔다.



**최완진 교수, 법의 날 유공 정부포상 황조근정훈장 수훈**  
 최완진 교수(법학전문대학원)가 4월 25일(화)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제54회 '법의 날'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상법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황조근정훈장을 수훈했다. 법의 날은 매년 4월 25일 국민의 준법정신을 앙양하고 법의 존엄성을 진작하기 위하여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국가기념일로 1964년 제정됐다.



**최재철 교수 저서,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최재철 교수(일본언어문화학부)의 저서 <일본문학 속의 사계(四季) -한국문학과의 비교를 통하여>(소명출판, 2016년)가 '2017년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이 책은 사계절이 분명한 동아시아의 같은 문순지역에 사는 일본인과 한국인의 계절감·자연관에 대해 양국의 문학 전반을 소재로 비교 설명한 것으로 국내외에 유일한 역저다.



**전태현 교수, '인도네시아인의 눈에 비친 6.25 전쟁' - 목타르 루비스의 한국 중군기 - 번역출간**  
 전태현 교수(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가 「인도네시아인의 눈에 비친 6.25 전쟁」 - 목타르 루비스의 한국 중군기-를 번역출간했다. 이 책은 한반도에서 벌어진 6·25전쟁 당시의 현장을 체험한 인도네시아 언론인의 수기로 인천상륙작전 직후부터 9월 28일 서울 수복에 이어, 10월 초 의정부 탈환작전에 이르기까지 전쟁터 곳곳에서 체험한 기록이 담겨있다.



**박재창 교수, 「한국 YMCA 운동의 전략 II」를 출간**  
 박재창 석좌교수(LD학부)는 최근 「한국 YMCA 운동의 전략 II」를 출간했으며, 정치개혁과 시민사회의 발전 문제를 다루었다. 이 책은 박 교수의 시민운동 연작 시리즈의 하나로 작년에는 「한국 YMCA운동의 진로」를 출판한 바 있다.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사이버한국외대' 2017-2학기 신·편입생 모집**  
 국내 유일의 '외국어 특성화' 사이버대학교인 사이버한국외대는 2017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모집학부는 외국어계열인 ▲영어학부 ▲중국어학부 ▲일본어학부 ▲한국어학부 ▲스페인어학부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와 사회계열인 ▲금융회계학부 ▲지방 행정·의회 학부 등 총 8개 학부다. 1차 모집기간은 6월 1일(목)부터 7월 13일(목)까지, 2차 모집기간은 8월 1일(화)부터 8월 14일(월)까지다. 사이버한국외대는 세분화된 장학제도를 통해 장학금 수혜의 폭을 넓혔다. 성적 위주의 장학금 지급에서 탈피,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고자 다양한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한국외대 동문 및 2촌 이내 가족을 대상으로 입학금 면제 및 입학시점부터 연속 2개 학기 수업료 25% 감면 등의 혜택을 마련했다.

문의 02-2173-2580 홈페이지 www.cufs.ac.kr/adms

**'2017 Cy외대 봄나들이'로 화합과 소통의 시간 가져**

사이버한국외대는 4월 29일(토) 국립수목원에서 춘계학생 행사인 '2017 Cy외대 봄나들이'를 열었다. 10대 총학생회에서 주관하는 첫 행사이자 교원, 재학생, 재학생의 가족과 친구 등 사이버한국외대 가족이 한데 어우러져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올해 봄나들이는 500여 명의 학생이 참가 신청을 할 정도로 행사 전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사이버한국외대 영어학부-미국 오하이오 대학교, 공동 수료증 과정 개설**

사이버한국외대 영어학부는 2017-2학기부터 미국의 오하이오 대학교(Ohio University)와의 공동 수료증 과정을 개설한다. 이번 과정은 Business English 수료증 과정과 TESOL/TEYL 수료증 과정으로 구성됐다. 수료증 과정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각 과정에 따른 필수 과목을 이수해야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영어학부는 CUPS TESOL 수료증, CUPS 어린이영어지도사 수료증, CUPS 방과후영어지도사 수료증, CUPS 영어번역사 자격증을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사이버한국외대, 다양한 오프라인 특강으로 전문성 갖춘 인재 양성**

사이버한국외대는 다양한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오프라인 특강을 진행했다. 5월 13일(토)에는 저금리시대에 주식 투자안목을 키우는 금융특강을, 5월 20일(토)에는 창업과 일본 취업을 고려하는 예비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창업' 특강을 열었다. 또한 사이버한국외대 TESOL대학원은 인공지능 컴퓨터인 IBM 왓슨(Watson)을 활용한 미래교육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인공지능 IBM Watson과 미래교육'을 주제로 한 콜로кви움을 개최했다.



**국내의 다양한 분야에서 꿈을 펼치는 사이버외대인**

사이버한국외대는 차별화된 교육과정과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을 토대로 국내 '최고'에서 세계 '중심'이 되는 핵심 인재를 양성한다. 한국어학부 최석준 동문은 '2017년 태국 현지학교 한국어교원'으로 선발됐으며, 일본어학부 양상준 학우는 사이버한국외대 축구팀을 거쳐 현재 일본 프로축구 J2 리그(2부) 로아소 구마모토에 영입되었다. 이외에도 많은 재학생, 졸업생들이 국가의 경계를 넘어 세계를 향해 꿈을 펼치고 있다.

**사이버한국외대, '고졸인재 잡 콘서트'서 꿈과 희망의 메시지 전해**

사이버한국외대는 3월 22일(수)~23일(목)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고졸인재 JOB CONCERT'에 참가했다. 2013년부터 매년 잡 콘서트에 참가하고 있는 사이버한국외대는 일과 학습의 병행 혹은 진학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입학 안내 및 상담을 실시했다. 부스에는 학생들을 비롯하여 선생님, 학부모도 방문하여 사이버외대의 교육 과정과 입학 방법을 문의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사이버한국외대, 경력개발 지원 위한 현장실습 첫 시행**

사이버한국외대는 2017학년도 여름방학부터 현장실습(인턴십) 제도를 운영한다. 현장실습 제도는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경력개발을 돕고자 마련한 것으로, 학교와 협약을 맺은 기업체에서 진행된다. 현장실습에 지원한 학생들은 기업체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경험을 쌓고 학점까지 인정받게 된다.

**외국어연수평가원**

**2017년 하반기 외국어교육과정 진행**

외국어연수평가원은 기초부터 고급까지 실용외국어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 다양한 외국어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주요 교육과정으로는 말하기·쓰기·듣기·읽기를 균형 있게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20주 주간 및 야간과정, 단기간 실용 회화능력을 집중 향상시키는 10주 야간과정, 실제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주말에 진행되는 주말특별과정, 여름과 겨울방학에 단기과정으로 진행되는 방학특별과정, 공무원유학시험으로도 활용되고 있는 국가공인 FLEX시험 대비과정 등 다양한 주중 및 주말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문의 02-2173-2515, 2524, 2525 홈페이지 http://flttc.hufs.ac.kr

**기관/기업체 위탁 집중교육과정 운영**

외국어연수평가원은 40개 이상의 기관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글로벌 인재양성과 소속 임직원들의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어학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이 과정은 위탁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설하고 있으며 의뢰기관의 교육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차별화된 커리큘럼과 콘텐츠를 바탕으로 위탁기관의 특성 및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맞춤형 외국어교육과정으로 설계 및 제공된다.

문의 02-2173-2524 홈페이지 http://flttc.hufs.ac.kr

**인사혁신처 위탁 주말 외국어특별교육과정 운영**



외국어연수평가원(원장 한원덕)은 2월 25일(토)~4월 29일(토)까지 '2017년 상반기 인사혁신처 위탁 주말 외국어특별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본 과정은 인사혁신처의 위탁을 받아 선발된 전국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Practical Language 중심의 교육을 통해 단기간 실제 의사소통능력의 집중 향상을 목적으로 10주간 주말(토)에 진행되었으며 총 163명이 수료하였다.

문의 02-2173-2525 홈페이지 http://flttc.hufs.ac.kr

**정규 20주 주간과정 영어과 게임데이 행사 개최**



외국어연수평가원(원장 한원덕)은 5월 17일(수) 게임데이 행사를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정규 20주 주간과정 영어과를 대상으로 매 학기 진행되는 체험학습 이벤트로 Class Mash-up과 영어게임 및 프로젝트 진행을 통해 의사소통, 대화, 협상, 발표능력을 향상시키며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통한 학습의욕 고취의 일환으로 매 학기 진행되고 있다.

문의 02-2173-2525 홈페이지 http://flttc.hufs.ac.kr

**TÖMER 터키어 강좌 진행**

HUFS와 터키 국립 앙카라대학교 간 협정에 의거하여 2011년부터 운영된 TÖMER(퇴메르) 터키어 과정은 앙카라대학교 내 동명의 교육 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는 국내 유일의 대학부설 터키어 교육프로그램이다. 매년 2, 4, 8, 10월 각각 8주 일정으로 개강하며, 학생과 일반인 모두 참여 가능하다.

문의 02-2173-2524

**스페인어 DELE 자격시험 진행**

DELE는 스페인 교육부의 이름으로 Instituto Cervantes가 수여하는 권위 있는 공인자격증으로, 스페인어 커뮤니케이션 수준과 경쟁력을 증명한다. HUFS는 Instituto Cervantes와 협정을 맺은 DELE 시험 시행기관이며 연 3차례(5월, 7월, 11월) DELE 자격시험을 진행한다. 시험을 통해 획득한 DELE 자격증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된다.

문의 02-2173-2498 홈페이지 http://dele.hufs.ac.kr

**세르반테스 교실 스페인어 강좌 운영**

외국어연수평가원은 스페인 세르반테스 문화원(Instituto Cervantes)과 협력하여 세르반테스 교실(Aula Cervantes)을 개설, 2015년 1월부터 스페인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 스페인어 강좌(초급 및 중급), DELE 시험대비반(B1, B2, C1) 등 모든 강좌는 원어민 강사가 직접 진행하며, 방학기간에는

DELE 시험대비 문법·어휘 집중강좌도 운영한다.

문의 02-2173-3593 홈페이지 https://www.facebook.com/AulaCervantesSeul, http://seul.cervantes.es

**서울평생교육원**

**통번역 기초과정 운영**

서울평생교육원은 통번역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통번역 기초과정'을 운영 중이다. 2014년 개설되어 현재까지 총 200여 명이 수강해온 본 과정은 HUFS의 38년 통번역 교육 노하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통번역의 기초 기술을 학습함으로써 외국어 구사력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강좌. 영어·중국어·일본어·스페인어·프랑스어·독일어·러시아어·아랍어 총 7개 언어에 대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연 2회, 3월과 9월에 개강한다.

문의 02-2173-2515 홈페이지 http://edulife.hufs.ac.kr

**통번역 단기특강 진행**

통번역 단기특강은 5주 동안 통번역의 기초를 다지어 보다 수준 높은 외국어 학습에 필요한 기틀을 닦을 수 있는 단기과정으로, 2017년 신규 개설되어 연 2회, 1월과 7월에 개강한다.

문의 02-2173-2515 홈페이지 http://edulife.hufs.ac.kr

**FLEX센터**

**2017년 전국 초·중·고등학교**

**외국어경시대회 개최 예정**

HUFS가 주최하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외국어경시대회(2017.6.18 시행)는 올해로 28년째(초등학교는 15년)를 맞이한 권위 있는 외국어경시대회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듣기·읽기 능력 평가를 시행하여 최종 종합성적 우수자를 선정, 시상한다. 수험생들은 이번 경시대회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국가공인 외국어능력 평가 시험(FLEX) 대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02-2173-2532, 2537 홈페이지 http://eflex.hufs.ac.kr

**기관맞춤형 어학평가 진행**

FLEX센터는 기업체, 정부, 공공기관, 학교, 단체 등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는 외국어능력평가

**TESOL전문교육원**

**2017학년도 상반기**

**Open Practicum&Job Fair 개최**

TESOL전문교육원은 6월 28일(수)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본관 7층에서 모의 강의 평가인 Open Practicum과 채용박람회인 Job Fair를 개최했다. 이번 개최된 Open Practicum&Job Fair에는 국내 유수의 영어교육 기관들이 참가했으며 이를 통해 많은 TESOL전문교육원 과정생과 수료생들이 강의에 대한 검증용 받고, 취업용 위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2017학년도 후기 일반전형 진행 및 특별전형 안내**

TESOL전문교육원은 2017학년도 후기 일반전형(1차 모집)을 5월 21일(일) 본관에서 진행하였다. 5월 8일(월)부터 15일(월)까지 지원한 많은 지원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입시전형은 자료읽기와 면접전형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을 통과한 인원은 올해 후기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2차 모집인 특별전형은 7월 10일(월)부터 17일(월)까지 접수를 받으며 7월 22일(토) 입학전형이 치러질 예정이다.

**2017학년도 후기 특별전형 대비 입학설명회 개최**

TESOL전문교육원은 2017학년도 후기 특별전형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7월 8일(토) 오후 2시에 미네르바공플렉스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TESOL과정 소개, 특전, 입시과정 안내(특별전형), 해외인턴십, 교수진 및 수료생과의 만남 및 상담회 등의 행사가 포함될 예정이다.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이 당일 행사에 참여 가능하며 참여하시는 분들께 소정의 기념품 및 브로슈어, 모집요강을 제공할 예정이다.

**2017학년도 후기 특별전형 모집 안내**

접수기간 | 17. 7. 10 ~ 7. 17  
 전형일자 | 17. 7. 22(토)  
 ※ 수업기간 : 17년 8월 28일부터 18년 1월 말까지 약 5개월  
 ※ 지원자격 : 국내외 학사 학위 소지자 혹은 17년 8월 졸업예정자  
 ※ 자세한 내용은 교육원 홈페이지(www.tesol.ac.kr)를 통해 확인

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의 정형화된 시험과 별도로 각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조건과 요청에 따라 맞춤형 시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채용, 인사고과, 승진, 파견, 어학능력평가 등의 자료로 다양한 기관에서 채택 및 활용되고 있다.

문의 02-2173-2530

**한국어문화교육원**

**여름 학기 한국어 정규 및**

**통번역을 위한 한국어과정 개설**

한국어문화교육원에서는 연 4회, 학기당 10주로 구성된 한국어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이번 봄 학기는 6월 8일(목)부터 8월 17일(목)까지 진행된다. 이번 학기 등록 인원은 1,300여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500여 명이 증가하였다. 정규 및 통번역과정은 타 대학과 차별화 된 '말하기 중심'의 수업과, 고급 한국어 구사를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

문의 02-2173-2259

**국내 대학 및 해외 대학,**

**기업체, 한국어 위탁교육과정 실시**

한국어문화교육원은 싱가포르 Ngee Ann Polytechnic, 태국 송클라대학교, 외국 지방공무원 초청연수사업 등 한국어 특별과정을 진행해 왔으며, 한국 보건산업진흥원 사우디 의료진, 경찰대학, 한국예술종합학교, UAE원자력 공사 외국인 대상으로 출강을 진행해 오고 있다. 올해 2월에는 베트남 공무원 초청 한국어 연수사업과, 4월에는 K2H 외국지방공무원 초청연수사업을 진행하였으며, 5월에 개강한 송클라대학교 특별과정은 7월에 마무리 될 예정이다.

문의 02-2173-2279

**한국어문화교육원, 여름 학기 단기과정 개설**

한국어문화교육원에서는 연 2회, 각각 4주로 구성된 한국어 단기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이번 여름 단기과정은 7월 26일(수)부터 8월 23일(수)까지 진행된다. 현재 대만, 일본, 루마니아 등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며, 4주 동안 한국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관련 통합 수업이 진행된다.

문의 02-2173-2279

**국제사회교육원**

**2017년 삼성인력개발원 상반기 주재원 파견 전 어학집중과정 입소식 개최**

2월 27일(월) 국제사회교육원(원장 박종찬, 생명공학과 교수)은 해외 주재원 파견 예정인 삼성그룹 임직원 39명을 대상으로 '2017년 삼성인력개발원 상반기 주재원 파견 전 어학집중과정' 입소식 행사를 진행하였다. 2016년 2월 27일(월)부터 3월 24일(금)까지 4주 합숙으로 진행된 이번 과정은, 주재원 대상자들의 언어능력 및 현지 비즈니스 수행능력 극대화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해당 교육생들은 4주 교육 종료 후에 소정의 평가를 통해 언어능력을 점검하고 세계 각지로 파견됐다.

**2017년 삼성인력개발원 힌디어 어학집중과정(2차) 입소식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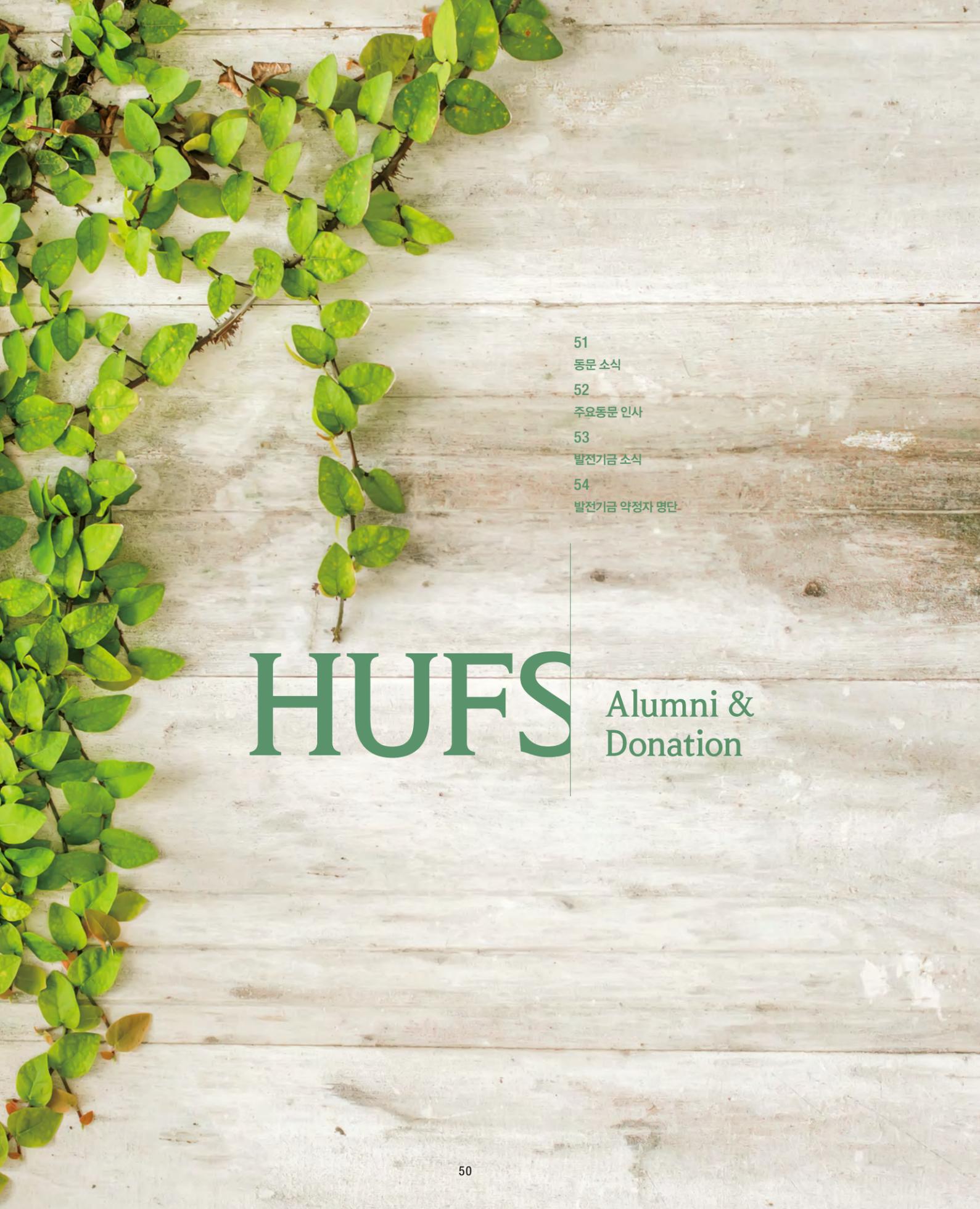
3월 13일(월) 국제사회교육원(원장 박종찬, 생명공학과 교수)은 삼성그룹 임직원 25명을 대상으로 '2017년 삼성인력개발원 힌디어 어학집중과정(2차)' 입소식 행사를 진행하였다. 2016년 3월 13일(월)부터 5월 19일(금)까지 10주 합숙으로 진행된 이번 과정은 교육생들의 현지어 언어능력 제고 및 현지 비즈니스 수행능력 극대화, 현지문화 이해에 관해 교육을 받았다.

**한국전력공사 2017년 On-Board**

**국내과정 입소식 개최**



5월 19일(월) 국제사회교육원(원장 박종찬, 생명공학과교수)은 한국전력공사 임직원 42명을 대상으로 '2017년 한국전력 On-Board 과정' 입소식 행사를 진행하였다. 금번 과정은 2017년 5월 19일(월)부터 7월 22일(토)까지 10주 동안 주말 집합교육으로 진행되었으며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스페인어 등 총 7개 어종에 대해 집중어학교육을 진행하였다.



# HUF S

## Alumni & Donation

- 51 동문 소식
- 52 주요동문 인사
- 53 발전기금 소식
- 54 발전기금 약정자 명단

### 제6회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조찬포럼

경영대학원 총동문회(회장 이병호)는 동문 상호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조찬 포럼을 3월 20일(월), 리버사이드호텔 토파즈 홀에서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동문회는 KB국민은행 국제담당상무, KB선물주식회사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현 한일관계를 30년 이상 연구한 김경희 연사를 초청해 한일관계사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 재 밀라노 이탈리아어과 동문회

4월 18일(화) 밀라노 Lee's Restaurant에서 재 밀라노 서양어대 이탈리아어과 동문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모임은 모교 학과장인 김시홍 교수의 밀라노 방문을 계기로 마련되었으며, 재학생들의 인턴사업과 졸업생들의 밀라노 진출을 돕는 가교 역할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다.



###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2017 춘계 한마음 등반대회

경영대학원 총동문회(회장 이병호)는 춘계 한마음 등반대회를 지난 4월 8일(토) 인왕산에서 개최했다. 이번 등반대회는 산을 좋아하는 동문들을 비롯해 50여 명이 참석했다. 건강증진도 꾀하고 화합을 다지는 이번 행사는 사직단-수성계곡-석굴암 뒤를 돌아오는 코스로 진행되었다. 이병호 총동문회장은 "인왕산에서 봄의 정취를 맘껏 느끼고, 서로 소통하며 자연 속에서 힐링하는 좋은 시간이 되어, 활기찬 동문회가 되도록 다함께 좋은 추억과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가득 채워가자"고 말했다.



### 만만혜 萬萬惠 캠페인

외대가족 1만명이 매월 1만원씩 기부하여  
외대인 모두가 혜택을 누린다는 의미의 캠페인입니다.

후원금액 : 월 1만원부터

문의 : 발전협력팀 02-2173-2756

만만한 관심, 만만한 참여로 한국외대를 위한  
새로운 기부 문화에 함께해주세요



메디

- 강영은\_프랑스82  
MBC 문화사업제작센터장
- 권상희\_신문방송87  
전자신문 고객센터국 전략마케팅팀 부장
- 김규원\_정치외교89  
한겨레신문 수도권팀장
- 김상운\_마인77  
MBC충북 대표이사 사장
- 김성식\_노어80  
MBC 콘텐츠제작국 부국장 겸 콘텐츠제작1부장
- 김엽\_스페인77  
MBC아카데미 대표이사 사장
- 김영삼\_아랍78  
MBC플러스 이사
- 김종구\_정치외교77  
한겨레신문 편집인 전무이사
- 김형배\_프랑스81  
한국경제신문 대외협력국 총괄부국장 겸 미래전략사업부장
- 김호영\_영어82  
한경닷컴 뉴스국장
- 박상후\_중국어통번역86  
MBC 시사제작국 부국장 겸 시사제작1부장
- 박재현\_영어81  
MBN 전무이사
- 배경록\_마인77  
씨네21(주) 대표이사
- 배윤호\_일본88  
울산MBC 편성콘텐츠국 미디어영상부 부장대우
- 신승근\_정치외교86  
한겨레신문 편집국 정치에디터
- 심원택\_영어77  
여수MBC 대표이사 사장
- 우준호\_포르투갈84  
조선일보 CS대외협력팀장
- 이재창\_영어82  
한국경제신문 정치부 선임기자
- 이진용\_경영96  
MBC 기획국 예산기획부장
- 정용준\_한불04(석)  
iMBC 대표이사 사장
- 천지우\_경제95  
국민일보재팬 기자
- 최영범\_정치외교80  
아시아경제 대표이사
- 최영환\_신문방송85  
경향신문 독자서비스국장
- 최원석\_신문방송89  
MBC 예능1국 제작4부장

공사

- 구자권\_영어78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센터장
- 김관미\_아랍어통번역88  
한국관광공사 홍콩지사장
- 박은희\_노어94  
코트라 노보시비르스크무역관장
- 안정준\_신문방송86  
인천국제공항공사 경영혁신본부장
- 양기모\_국제통상84  
코트라 리아드무역관장
- 이승호\_영어78  
SR(수서고속철 SRT 운영사) 사장
- 이재상\_독일82  
한국관광공사 이스탄불지사장
- 이희상\_국제통상03  
코트라 앙고라무역관장
- 임성주\_국제통상91  
코트라 카르툼무역관장
- 정필주\_경제92  
인천국제공항공사 총무팀장

정부 기관

- 김법일\_스페인79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장
- 김태일\_경제8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박신환\_아랍81  
경기도 의회사무처장
- 박정배\_일본81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송미선\_정치외교91  
교육부 학교정책실 행정사무관
- 이원근\_독일82  
한국연구재단 원천연구사업실장
- 이창준\_행정85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장
- 정순화\_영어86  
한국마사회 감사부장
- 조현창\_행정08  
법무부 수원지방검찰청
- 최철규\_프랑스77  
대전시 국제관계대사

금융

- 구자환\_정보통신공학97  
신영증권 신탁부 차장
- 김대수\_스페인02  
IBK기업은행 울산지점장
- 박명환\_스페인83  
신한저축은행 상무
- 엄진\_프랑스89  
신영증권 법인영업부 부장
- 원상현\_경영87  
BC카드 발행운영실장

기타

- 김병문\_행정80  
안동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 김정환\_포르투갈77  
삼성전자 중남미총괄 부사장
- 김현준\_수학97  
CJ올리브네트웍스 IT미래성장추진실장(부사장)
- 나형근\_행정86  
전국경제인연합회 커뮤니케이션본부 회원팀장
- 명성완\_이탈리아80  
삼성전자 중동총괄 전무
- 윤도선\_중국81  
CJ그룹 중국사업담당 중국본부장
- 정향재\_일본88  
한남대학교 생활관장(겸직 외국어교육원장)
- 홍현철\_스페인80  
삼성전자 서남아총괄 부사장

2017년 부산동문회 후배사랑 장학금 전달식

부산동문회(고문 윤성원, 영어교육 73/회장 신재하, 이란어 79)는 3월 22일(수), 부산 해운대 마리나센터 8층 중식당 아미산에서 '2017 부산동문회 후배사랑 장학금 전달식'을 거행하였다. 부산동문 20여 명과 학교 관계자, 장학금 수혜학생 및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신재하 회장은 김민기(철학과 13) 학생, 박성배(서아프리카어 13)학생, 서성은(독일어교육 17) 학생에게 각각 장학 증서를 수여하였다.



2017학년도 이덕선장학금 수여식

4월 6일(목) 대학본부 203호 이덕선회의실에서 '2017학년도 이덕선장학금 수여식'이 열렸다. '이덕선장학금'은 올해로 8년째 HUFS 학생들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총 56명의 장학생을 배출하였다. 2017학년도 이덕선장학금 장학생으로는 김윤식(경영학전공 14), 현주은(한국어교육과 16), 최주희(마인어통번역학과 14), 김서은(폴란드어과 16) 학생이 선발되었다.



제3회 외대재직직원장학금(씨앗) 전달식

외대재직직원장학금(이하 씨앗장학금, 회장 글로벌 학술정보팀 김상현 팀장)의 세 번째 장학금 전달식이 3월 24일(금) 서울캠퍼스 대학본부 203호 이덕선회의실에서 열렸다. 2013년 뜻있는 몇몇 직원들이 시작한 씨앗장학금은 이제 120여 명이 후원하는 장학기금으로 성장하였다. 제3회 씨앗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각각 일본어학전공, 경영학전공, 영어통번역학부,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학생이다.



이상철 회장 강의실 동판 제막식

5월 29일(월) 사이버관 402호에서 이상철 회장 강의실 동판 제막식이 거행되었다. 이상철 회장은 미국에서 Azure, CSJ & Co, Inc를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대학원 뉴욕 G-CEO 4기로 HUFS와 인연을 맺은 뒤 2011년부터 학교발전기금 및 도서관건립기금 등 총 2억 원이 넘는 거액을 기탁하여 왔다. 이에 이상철 회장의 뜻을 기리고자 경영대학원 전용 첨단 강의실인 사이버관 402호를 이상철강의실로 명명하였다.



영어통번역학부 TESOL 영어학전공 장학금 수여식

영어통번역학부 TESOL 영어학전공(전공주임: 김유강 교수)는 3월 29일(수) 글로벌캠퍼스 백년관에 위치한 명수당홀에서 2017년도 1학기 'TESOL 영어학 제자사랑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 학기 장학생은 8명(유지아, 홍은미, 장현우, 이소흔, 황영선, 송윤섭, 김보연, 조수민)으로 총 600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되었다.



노어과 조승근 동문장학금 수여식

노어과 조승근 동문장학금 수여식이 5월 19일(금) 서울캠퍼스 본관 이덕선강의실에서 열렸다. 올해 첫 수여식을 연 조승근 동문장학금은 노어과 학생 중 학과 발전에 공로가 있고 자치활동에 적극 참여한 학생, 품행이 타 학우들의 모범이 되는 학생, 성적이 우수하나 학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이다. 이번 해에는 오세준(09), 임태현(11), 김예지(13), 김충실(14), 정수빈(14) 학생이 선발되었다.



# Donation List

## 발전기금 약정자 명단

2017. 3. 1. ~ 2017. 5. 31.

성명	소속	약정합계(원)	성명	소속	약정합계(원)
고용식	상경대학 경제학과 86 동문	240,000	한국외대 재직직원동문회	동문단체	392,000
권기찬	동양어대학 아랍어과 70 동문	10,000,000	해외 G-CEO과정 인도네시아 3기 동문단체		9,457,172
김승연	서양어대학 네덜란드어과 86 동문	2,000,000	한국외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부설기관	24,480,810
김은지	국제지역대학원 국제지역학과(박) 11 동문	1,200,000	글로벌캠퍼스 신우회	교내단체	1,000,000
김정기	일반대학원 러시아동유럽학과(석) 88 동문	200,000	ARS	기타(개인)	44,550
김종태	상경대학 국제통상학과 77 동문	360,000	오준석	기타(개인)	14,690,000
김태식	상경대학 국제통상학과 66 동문	3,000,000	이경만	기타(개인)	30,000,000
김한철	서양어대학 포르투갈어과 90 동문	3,000,000	(주)대학내일	기타(기업)	6,000,000
노상원	상경대학 국제통상학과 77 동문	120,000	(주)더블류피스포테인먼트	기타(기업)	500,000
박명석	영어대학 영어과 57 동문	20,000,000	(주)세파스	기타(기업)	10,000,000
박병준	법과대학 법학과 86 동문	120,000	(주)신중성어학원	기타(기업)	500,000
박재진	서양어대학 스페인어과 74 동문	10,505,000	(주)씨에스엘텍	기타(기업)	600,000
박지숙	동양어대학 아랍어과 94 동문	480,000	(주)와이티엔	기타(기업)	1,670,868
방선홍	동양어대학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83 동문	1,000,000	(주)위메프	기타(기업)	1,000,000
배석주	통번역대학 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 90 동문	7,200,000	(주)진학어플라이	기타(기업)	18,000,000
송배호	상경대학 국제통상학과 77 동문	1,800,000	(주)토니모리	기타(기업)	5,000,000
안형민	서양어대학 독일어과 06 동문	500,000	(주)팔도	기타(기업)	3,400,000
엄홍길	중국어대학 중국어과 02 동문	480,000	(주)포엠아이디엘	기타(기업)	1,038,000
윤성희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89 동문	5,000,000	CJ대한통문	기타(기업)	33,130,500
윤우근	상경대학 국제통상학과 72 동문	120,000	국민은행 이문동지점	기타(기업)	5,000,000
윤윤수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66 동문	700,000,000	메가스터디교육(주)	기타(기업)	16,400,000
윤호선	상경대학 국제통상학과 73 동문	120,000	문서지(주)	기타(기업)	1,000,000
이경석	경영대학 경영학과 88 동문	1,200,000	부성서점	기타(기업)	21,363,500
이규철	상경대학 국제통상학과 75 동문	480,000	(사)주한글로벌기업 대표자협회	기타(단체)	3,600,000
이기선	상경대학 국제통상학과 77 동문	480,000	(재)러시엔캐시배정장학회	기타(단체)	35,221,500
이미순	일본어대학 일본어과 90 동문	478,000	(재)한국대학봉사회	기타(단체)	1,000,000
이상철	글로벌 CEO New York 4기 동문	5,000,000	(재)협성문화재단	기타(단체)	500,000
이승률	상경대학 국제통상학과 77 동문	600,000	KRA와 함께하는 농어촌희망재단	기타(단체)	7,500,000
이영우	동양어대학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68 동문	10,000,000	노업문화재단	기타(단체)	800,000
이영주	상경대학 국제통상학과 77 동문	120,000	대순진리회 수색방면	기타(단체)	19,334,500
이현석	중국어대학 중국어과 81 동문	600,000	대웅재단	기타(단체)	3,785,000
이호경	일본어대학 일본어과 91 동문	480,000	미래에셋백현주재단	기타(단체)	46,550,000
이호덕	동양어대학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70 동문	10,000,000	미래인재육성재단	기타(단체)	3,901,500
전승현, 김선우	동양어대학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10 동문	300,000	밀양소방서	기타(단체)	728,220
조경규	상경대학 경제학과 80 동문	1,000,000	백미장학금(마인어과)	기타(단체)	3,000,000
조용진	상경대학 국제통상학과 83 동문	240,000	백운장학재단	기타(단체)	5,000,000
최병석	상경대학 국제통상학과 77 동문	120,000	분슬김종한장학재단	기타(단체)	6,721,000
최준석	동양어대학 이란어과 90 동문	120,000	삼성복지재단	기타(단체)	44,662,500
최철식	상경대학 국제통상학과 90 동문	120,000	생명보험협회	기타(단체)	5,000,000
한철호	동양어대학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78 동문	10,000,000	서울장학재단	기타(단체)	2,000,000
김광섭	외대교수	750,000	서천소방서	기타(단체)	570,000
김동환	외대교수	1,000,000	성남시장학회	기타(단체)	11,211,000
김봉철	외대교수	20,000,000	성육문화재단	기타(단체)	7,216,000
김유강	외대교수	5,618,000	신라문화장학재단	기타(단체)	21,858,500
김지현	외대교수	750,000	웅운장학회	기타(단체)	3,500,000
박정운	외대교수	2,000,000	우덕재단	기타(단체)	24,882,000
손수현	외대교수	2,000,000	이스테파노장학재단	기타(단체)	3,000,000
여호규	외대교수	3,825,000	일주화술문화재단	기타(단체)	500,000
오완근	외대교수	2,000,000	재단법인 인촌	기타(단체)	1,500,000
이영학	외대교수	750,000	재단법인 한국방정환재단	기타(단체)	3,800,000
이창현	외대교수	1,000,000	재단법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기타(단체)	5,000,000
임영상	외대교수	450,000	철원소방서	기타(단체)	1,120,990
최호성	외대교수	750,000	춘천소방서	기타(단체)	1,120,990
김석중	외대직원	1,550,000	충남 해군 본부	기타(단체)	3,360,500
정용호	외대직원	2,260,000	충주소방서	기타(단체)	796,080
단창균	학부모	960,000	하림장학재단	기타(단체)	2,000,000
마인어통번역학과 동문회	동문단체	2,995,000	현마육영재단	기타(단체)	19,430,500
매경-외대 차이나 CEO	동문단체	10,000,000	형애장학회	기타(단체)	14,147,500

# 한국외국어대학교 기부금 약정(기부서)

기 부 인	성명(상호)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input type="checkbox"/> 자 택 <input type="checkbox"/> 직 장				
인 적 사 항	근 무 처				부서/직위	
	연 락 처				E-mail	
구 분	동 문	학과명			입학 연도	년
	비동문					
기부 지정분야		<input type="checkbox"/> 학교발전기금 <input type="checkbox"/> 도서관건립기금 <input type="checkbox"/> 학과발전기금 :                    대학                    과 <input type="checkbox"/> 장학기금 :                        대학                    과 또는 장학명 : <input type="checkbox"/> 지정기부금 :				
약정(기부) 총액		<input type="checkbox"/> 현금                                    원		<input type="checkbox"/> 현물                                    원		
납부 기간 · 방법	일 시 납	<input type="checkbox"/> 1회 완납 (금                                    원)                    년                    월                    일 납부(예정)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6-05-031630 한국외국어대학교				
	분 납 (자동이체)	<input type="checkbox"/> 월납부액 (                                    원,                    회)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이체일 : <input type="checkbox"/> 15일 <input type="checkbox"/> 말일				
	분 납 (교직원용)	<input type="checkbox"/> 월납부액 (                                    원,                    회) 사    번 (                                    )				
기부 권유자		성명 :                                    연락처 :			*기재하신 사항은 참고자료로만 사용됩니다.	

※ 위 기부(약정)서를 작성하신 후 팩스(우편)로 보내주시거나 홈페이지(tund.hufs.ac.kr)를 통해서도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한국외국어대학교 발전기금을 약정(기부)합니다.

20                    년                    월                    일

기부(약정)인 :                                    (서명)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는 발전기금의 약정 및 기부처리, 기부금 영수증 발행과 예유, 기부내역 관리, 기부행사 안내 및 홍보의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자택주소 또는 직장주소), 연락처(자택 전화번호 또는 직장전화번호 또는 휴대폰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자동이체 시), 사번(급여공제 시)  
 · 선택항목 : 위 필수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는 기부자 정보에 대한 기록 보존이 필요한 시기까지 보관됩니다.

###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기부금 약정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기부자 예유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기부처리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인 필수항목 미 작성 시 기부처리 불가)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필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기부인력을 위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필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기부행사 안내 및 홍보를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선택)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우리 대학에서 보내드리는 소식지,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 발송 및 연락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성명, 학과, 학번,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발송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제1의 글로벌대학으로서 개교 62주년을 맞이한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취 거부 연락 주실 곳  
발전협력팀 전화 : (02)2173-2756 이메일 : hufs5@hufs.ac.kr

붙이는 곳

접는 선



접는 선

보내는 사람  
\_\_\_\_\_  
\_\_\_\_\_  
\_\_\_\_\_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6.9.2~2018.9.1  
동대문우체국  
제40122호



받는 사람  
\_\_\_\_\_  
한국외국어대학교 대외협력처 발전협력팀  
\_\_\_\_\_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0 2 4 5 0



그 시절 우리가  
함께 걸었던  
그 길을  
기억하시나요

응답하라  
1967



사진 속의 외대인을 찾습니다.

GLOBAL HUFSS는 2017년부터 한국외대 동문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을 함께 공유하는 코너를 운영합니다. 본인이 사진 속의 주인공이거나 혹시 사진 속의 인물들 중 아는 인물이 있으시면 한국외대 전략홍보팀으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당시의 사진 속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동문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